

평가 문제집

미래엔
교과서

고등학교 공통국어2

바른답·알찬풀이



1 한국 문학의 길

01 옛 노래 감상하기

제망매가 월명사/속미인곡 정철

내용 확인하기

10~14쪽

1 ④ 2 ② 3 ④ 4 ⑤ 5 ② 6 ④ 7 ⑤ 8 ① 9 ③ 10 ⑤
11 ② 12 ② 13 ⑤ 14 ⑤ 15 ③ 16 ⑤

- 1 이 글의 ‘나’는 누이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다가 미타찰에서 누이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미타찰은 극락세계를 이르는 것으로 내세에서 재회하는 공간이다.
- ② 누이의 죽음을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에 비유하고 있다.
- ③ 누이가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갔다는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다.
- ⑤ 누이의 죽음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2 ‘이른 바람’은 누이의 이른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 3 예(이승)에서 미타찰(극락)로 가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도’를 닦아야 하는데, 이는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모든 ‘죽음’ 이후가 미타찰로 가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만남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 ② 이 글은 논리적이기보다는 종교(불교)적인 성격의 글이다.
- ③ 이 글은 슬픔을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 ⑤ 이 글을 미학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미타찰에 가는 것은 미학적 접근이 아니다.

- 4 10구체 향가에서 시상의 전환은 대체로 낙구(9~10구)에서 일어난다. 이 글의 1~8구에서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주로 전하고 있고, 낙구에서 내용을 전환하며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 5 「속미인곡」은 가사 작품으로, 3(4)·4조 4음보의 연속적인 운문의 형식을 지닌다.

오답 풀이

- ①, ③ 가사는 3음보가 아니라 4음보가 기본 음보이다.

- ④ 가사는 10구체 향가의 3단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 ⑤ 가사는 산문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시가처럼 간결한 미의식을 지닌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기-서-결’은 10구체 향가의 형식이다.

- 6 ⑦은 지나가는 각시를 불러 사연을 묻는 화자로, 상대(‘나’)의 하소연을 유도하는 보조적인 화자이다.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⑤ 모두 중심 화자인 ‘나’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 7 ㉠ ‘나’가 백옥경을 떠나게 된 사정에 대해 입을 뗃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숙명으로 여기는 태도는 작가가 유교적 도덕을 따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기〉를 고려할 때, ‘나’의 이러한 태도에는 신하로서 군주를 비판하지 않는 작가 정철의 유학자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부분에서 죽음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임과의 재회를 포기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 ③ 입을 원망하고 있지 않다.
- ④ 이 글에서 조물주는 숙명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 간신들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 8 이 글은 사연을 이야기하는 여인과 그 여인을 위로하는 또 다른 여인의 대화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이 글에는 임과의 이별 상황만 제시되어 있을 뿐, 대조적인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이 글에는 남녀 간의 대화와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 글의 ‘물 7튼 얼굴’에서 임의 외양이 언급되어 있지만 성품에 대한 언급은 없다.
- ⑤ 복수의 화자가 등장하지만 그중 한 여인만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있다.

- 9 ⑦은 이 글의 중심 화자로, 산에 올라갔으나 구름과 안개가 끼어 일월을 보지 못한 채 내려왔다.

- 10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소재는 ‘빈 비’이다. 사공이 없는 빈 배로 인해 화자는 임에게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된다.

오답 풀이

- ① ‘기나긴 밤의 잠’은 외로움을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으나 임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늦픈 뗏’은 임에게 가는 험난한 여정을 가리킨다. 외로움을 심화

시키지 않으며, 임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단서도 아니다.

- ③ '일월'은 해와 달, 즉 임금을 의미한다.
- ④ '비길'은 임을 찾으러 가기 위한 길을 의미한다.

- 11 [B]에는 꿈에서 잠시 임을 보게 된 상황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오답 풀이

- ① '디노 히', '밤둥' 등에서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 ③ 꿈속에서 임을 만나 말을 하려니 눈물이 나 말을 못하고 목이 메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 ④, ⑤ 임을 애타게 그리워하여 임에 대한 꿈까지 꾸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12 '반백 청등'은 임이 오기를 바라며 켜 두었지만 임이 오지 않아서 쓸모가 없는 상황이므로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화자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지 않다.
- ③ 화자의 과거 기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화자의 내적 갈등 해소와는 관련이 없다.
- ⑤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은 아니다.

- 13 [B]~[C] 부분에서 화자를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꿈에서 만난 임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꿈을 깨우는 존재인 '오던된 계성'이다.

- 14 이 글이 남녀 간의 연정을 노래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낙월이나 되야이셔'에는 화자의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 ① 임에 대한 그리움이 표현된 글이다.
- ② 보조적인 화자가 하소연하는 중심 화자에게 임께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갈 것을 권유하며 위로하고 있다.
- ③ 이 글은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구사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④ '출하리 식여디여'를 통해 비극적 초월을 확인할 수 있다.

- 15 '어엿븐 그림재'에서 '어엿븐'은 '불쌍한'이라는 의미이므로 '여인 2'의 쓸쓸한 심정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자만 자신을 좇는다는 것은 임이 오지 않아 방 안에 홀로 있는 쓸쓸한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 16 '낙월'은 지는 달로, 임을 멀리서 잠깐이나마 바라보겠다는 소극적인 의지의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눈물'은 '구준비'가 함축하는 의미에 해당한다.
- ② 임에 대한 간절함을 해소하는 소재는 '구준비'에 해당한다. 간절함을 해소했다면 '각시님'에게 권유하는 화자가 굳이 '구준비'가 되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③ 임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을 암시하는 표현은 '구준비'이다.
- ④ '낙월'은 '각시님'이 임을 보기 위해 죽어서 되고자 하는 존재로 장애물이 아니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16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①

- 01 「제망매가」는 불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다짐하는 낙구에서 종교적 믿음을 통한 슬픔의 극복을 제시하고 있다.

- 02 「제망매가」에서 '도'를 닦는 행위는 종교적 진리를 닦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에서의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03 '빈 비'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쓸쓸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구름, 안개, 바람'은 화자의 소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 ③ '반백 청등'에는 임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지 않다.
- ④ '오던된 계성'은 꿈속에서 임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소재이다.
- ⑤ '구준비'는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소재이다.

- 04 「오백 년 도움지를~」과 「제망매가」는 모두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종장의 '어즈버'와 낙구 '아이'가 시상을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오답 풀이

- ② 두 작품 모두 대화체가 아니라 독백조로 되어 있다.
- ③ 「오백 년 도움지를~」은 '초장-중장-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망매가」는 '가-서-결'로 구성되어 있다.
- ④ 「오백 년 도움지를~」은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을 뿐이고, 「제망매가」에는 이질적인 공간으로 이승과 미타찰이 나타나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 대한 비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⑤ 두 작품 모두 여성 화자가 아니다.

소단원 평가

17~21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③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시상을 집약하거나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05 ④ 06 ② 07 ③ 08 ⑤ 09 ⑤ 10 '낙월'은 멀리서 잠깐 동안 임을 보다 사라지는 것으로, 임과의 만남이 오랫동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11 ⑤ 12 ④ 13 ④ 14 ⑥ 아아 ⑥ 어즈버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3단 형식과 향가의 낙구 감탄사, 시조의 중장 첫 구 3음절을 통해 한국 시가 문학의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 15 ② 16 ③ 17 ① 18 ① 19 (가)의 씬은 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나)의 씬은 인생무상을 의미한다. 20 ⑤

01 이 글은 불교적 성격의 노래로, 향가이다. 향가에 유교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02 이 글의 '한 가지에 나고 / 가는 곳 모르온저'에서 자연 현상에서 발견한 삶에 대한 무상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 철학적인 회의감이 드러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이 글에서 종교는 삶의 무상감을 극복하는 계기이다.
- ④ 이 글에는 고독과 외로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이 글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타나지 않는다.

03 지전이 서쪽으로 사라졌다는 것은 죽은 누이가 서쪽, 즉 서방 정토의 극락세계인 미타찰에 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작가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미타찰에서 죽은 누이와 재회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절대자에 대한 지향은 이 노래에 나타나지 않는다.
- ③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 ④ 화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도 님아 기다리겠노라.'는 시간이 지나기를 바란다고 보다는 종교적인 수양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04 낙구의 '아아'는 1~8구에 나타난 누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미타찰에서의 재회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기에 앞서, 시상을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아아' 자체가 화자의 염원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상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② 슬픔과 고뇌가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④ 이 글에 누이에 대한 예찬적인 내용은 없다.
- ⑤ '아아' 자체가 화자의 강렬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시행이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

05 가사는 산문과 운문의 중간 형태로, 사대부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욱 자유롭게 펼치기 위해 활용한 갈래이다.

오답 풀이

- ① 「속미인곡」과 같은 사대부의 가사가 아니라 조선 후기의 평민 가사에서 풍자와 비판이 잘 드러난다.
- ② 가사는 3음보가 아니라 4음보 율격을 지닌다.
- ③ 형식은 4음보 연속체로서 운문의 형태를 띠지만, 내용은 산문적이다.
- ⑤ 조선 전기 가사는 주로 연군지정과 안빈낙도, 조선 후기 가사는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의식을 표현한다.

06 (가)는 서사로, 첫 번째 화자가 '히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느고'라는 말을 던지며 두 번째 화자의 하소연을 유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서사에 해당한다.
- ③ (나)는 본사로, 두 번째 화자의 하소연이 본격화되고 있다.
- ④ (나)는 두 번째 화자가 하소연을 하는 부분이다.
- ⑤ (가)는 서사이고, (나)는 본사이다.

07 '조물'은 화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지 간신을 뜻하는 말은 아니다.

08 (나)는 결사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 '각시님'이 독수공방하는 애달픈 처지가 나타나 있다.
- ② (가)에서는 꿈속에서 임을 만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③ (나)는 결사로, '각시님'의 하소연을 들은 화자가 '구준비'가 되어 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라고 권유하고 있다.
- ④ (나)에서 '각시님'은 죽어서 낙월이 되어서라도 임을 보고 싶어하고 있다.

09 (가)의 화자는 꿈속에서 임을 만나지만 '오던된 계성'으로 인해 꿈에서 깬다. 따라서 '오던된 계성'은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소재이다.

10 ‘낙월’은 멀리서 잠깐 동안 임을 비추는 소극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임과의 만남이 오랫동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였다.

11 ㉠ 부분의 화자는 ‘각시님’에게 ‘구준비’와 같이 더 적극적으로 임에게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고 더 능동적으로 임에게 가까이 다가가라고 권유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각시님’을 위로하고 있기도 하다.

오답 풀이

- ① ㉠의 화자는 ‘각시님’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와 위로를 하고 있다.
- ② ㉠의 화자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보다 위로와 권유를 하고 있다.
- ③ ㉠의 화자가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의 화자가 ‘각시님’에게 말한 것은 더 다가가라는 것이지 그리움을 떨치라는 것이 아니다.

12 세 작품의 공통점은 화자의 상실감이다. (가)는 누이를, (나)는 임을, (다)는 고려와 고려를 지켰던 인걸을 상실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은 (가), (나)에 해당한다.
- ② (가)에서 인생무상에 대한 허무감을 극복하고 있다.
- ③ 자책을 보이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 ⑤ (가)~(다)에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이 좌절된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미타찰’은 화자가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꿈꾸며 미래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공간이고, ‘백옥경’은 화자가 임과 함께 만족한 삶을 살았던 과거의 공간이다.

오답 풀이

- ① ‘백옥경’은 경쟁과 갈등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니다.
- ② ‘미타찰’은 도를 닦는 공간이 아니라 도를 닦아서 도달하는 공간이다. ‘백옥경’은 화자에게 미지의 공간이 아니다.
- ③ ‘백옥경’은 화자가 사랑하는 임이 있는 공간이다.
- ⑤ ‘백옥경’은 화자가 떠나온 공간이지 슬픔을 극복하는 공간이 아니다.

14 시조의 종장 첫 3음절과 향가의 낙구의 감탄사는 그 형식과 기능이 유사하여 한국 문학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로 기능하고 있다. (가)의 ‘아아’, (다)의 ‘어즈버’가 이에 해당한다.

15 (다)에서 ‘산천은 의구히되 인걸은 간디 없다’는 변하지 않는 자연과 변해 버린 인간사를 대비하여 인생무상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 흥취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이 글에서 삶에 대한 객관적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이 글에서 인간의 한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이 글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16 (가)는 가사이고, (나)는 시조로, 모두 4음보 율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운문의 형식이다.
- ② (가)는 대화하는 형식이지만, (나)는 독백체에 가깝다.
- ④ (가), (나)는 모두 4음보 율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17 (가)는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더욱 간절한 표현을 통해 독자의 이해와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나)는 ‘필마’ 등을 고려할 때 남성 화자에 가깝다.

오답 풀이

- ② (나)의 화자는 남성으로 볼 수 있으나, 그가 강인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회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나)는 여성 화자로 보기 어렵다.
- ④ (가)는 복수의 화자가, (나)는 한 명의 화자가 설정되어 있다.
- ⑤ (가)의 작가는 사대부이지만, 화자는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18 ‘반벽 청등’은 밝힐 대상이 없이 홀로 있으므로 외로운 처지를 나타내고, ‘필마’는 무리가 아니라 혼자 말을 타고 왔음을 나타내므로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다.

오답 풀이

- ②, ③, ④ ㉠과 ㉡ 모두 화자의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 ⑤ (가)에서 놀라움의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19 (가)에서 ‘썸’은 화자에게 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고, (나)에서 ‘썸’은 삶의 무상함을 드러낸다.

20 ‘구준비’는 임의 옷을 적실 수 있는 소재로, 임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사랑을 직접 알리는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화자의 눈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잠시라도 임을

바라보고자 하는 ‘각시님’의 소극적인 소망은 ‘구준비’가 아니라 ‘낙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등급 평가

22~23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③

1등급을 결정짓는 **사실형 문장**

05 [1단계] 하소연, 주제

[2단계] 위로

[3단계] 두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 1’이 하소연하는 ‘여인 2’의 처지를 공감하고 위로하도록 하면서 ‘여인 2’에 대한 독자들의 연민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01 화자는 누이를 잃은 상실감을 느낄 뿐, 속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02 (가)는 ‘미타찰’에서 누이와 재회하기를 꿈꾸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적 승화라고 볼 수 있고, (나)는 ‘태평연월이 꿈’이라는 표현을 통해 인생무상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성실한 삶의 자세로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겠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 ② (가)는 재회를 소망하고 있지만 소망을 이룬 것은 아니며, (나)는 ‘꿈’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꿈’처럼 허무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인생무상의 감정을 느낄 뿐, 새로운 기대를 품고 있지 않다.
- ⑤ (나)의 ‘꿈’은 현실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의 ‘미타찰’도 현실 문제의 극복이 아니라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태도와 관련된다.

03 ‘인결’은 특히 뛰어난 인재를 이르는 말로 옛 왕조에 등을 돌린 변절자가 아니라 옛 왕조를 지켰던 인물들을 의미한다.

04 (다)에서 중심 화자인 ‘각시님’은 ‘낙월’로 소극적인 태도를, 각시님에게 권유하는 보조적 화자는 ‘구준비’로 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임금에게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충신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각시님’도 작가가 내세운 인물인 만큼, ‘구준비’는 적극적으로 임금에게 다가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 1등급을 결정짓는 **사실형 문장**

◆ 1단계: 키워드 발견

‘여인 1’의 역할은 ‘여인 2’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여인 2’의 하소연을 유발하는 것이며, ‘여인 2’는 ‘여인 1’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하소연을 전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등을 풀어놓으면서 작가의 주제 의식을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여인 1’은 ‘여인 2’의 하소연에 공감하고 ‘여인 2’를 위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인 1’은 보조적 역할을 할 뿐이고, 중심 화자는 ‘여인 2’이다. 독자들은 ‘여인 1’과 같은 입장에서 ‘여인 2’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게 된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하소연’, ‘위로’, ‘주제’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했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작성한 경우	5
‘하소연’, ‘위로’, ‘주제’라는 키워드는 활용하였으나,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했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작성하지 못한 경우	3
‘하소연’, ‘위로’, ‘주제’라는 키워드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여인 1’과 ‘여인 2’ 각각의 기능만 밝히는 것은 감점의 요인이 된다. ‘여인 1’을 설정한 것은 ‘여인 2’의 사연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지만, ‘여인 2’의 심정에 공감하고 그를 위로하는 것이 ‘여인 1’의 궁극적인 역할이다. ‘여인 1’이 ‘여인 2’의 하소연에 공감하듯이, 독자들도 이에 함께 공감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들도 ‘여인 1’과 같이 ‘여인 2’의 말을 듣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독자들의 공감도 이뤄진다는 점을 답안에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02 고전 소설 감상하기

▶ 춘향전 작자 미상

내용 확인하기

26~30쪽

1 ① 2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3 ④ 4 ⑤
5 ⑤ 6 ③ 7 ② 8 ④ 9 ② 10 ③

1 이 글은 판소리계 소설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섞여 있다.

▶ 오답 풀이

- ② 막과 장이 구분되는 것은 근대 이후의 희곡이다.
- ③ 남녀 간의 사랑,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등을 주제로 하므로 작가의 독창적인 주제 의식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서정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 ⑤ 독특한 개성을 지닌 인물보다는 전형성을 띤 인물의 이야기이다.

2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는 좋은 결과는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결과는 남에게 돌리겠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으로, 이몽룡이 부패한 변 사또를 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다.

3 [A]의 시에는 백성을 수탈하는 지배층과 고통당하는 백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따라서 권력층의 부도덕성을 부각하며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 오답 풀이

- ① 「춘향전」 전반에 해학성과 풍자성이 드러나지만, 삽입된 시 [A] 자체에서는 해학과 풍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A]는 은유법과 대구법을 활용하여 탐관오리의 횡포와 고통받는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 ② 영웅적 면모를 형상화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민중의 혁명을 형상화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춘향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4 ㉠에는 판소리계 소설의 확장적인 문체가 나타나 있다. 이는 여러 상황을 나열하며 장황하게 서술하면서 의미를 구체화하고 그 과정에서 흥미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 오답 풀이

- ① 이질적인 소재가 아니라 비슷한 소재들을 나열하였다.
- ② 불필요한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
- ③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열거법을 활용하고 있다.
- ④ 대조적인 소재가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소재를 나열하였다.

5 서리, 역줄은 어사또가 데려온 이들이므로 이들이 어사출두 과정에서 혼을 잃고 달아나지는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운봉은 한시를 보고 어사또의 정체를 짐작하여서 아전들을 불러 단속을 하였다.
- ② 공방은 “안 하겠단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속에 어찌 들랴.” 하며 자신의 처지를 억울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 ③ 본관 사또는 어사또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한 채 춘향을 올리라는 명을 내렸다.
- ④ 어사또는 부하들과 내통하여 어사 출두를 외치고는 본관 사또와 아전들을 잡아들였다.

6 마패를 달과 햇빛에 비유한 까닭은 그것이 억압받는 민중과 옥에 갇힌 춘향을 구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달은 마패와 비슷하지만 햇빛의 모양이 마패와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달과 햇빛은 광명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이 글에서 임금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이 글에서 몰락한 양반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7 천민인 춘향은 신분을 제약하는 당시 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춘향은 이몽룡과 갈등 관계에 있지 않다.
- ③ 이몽룡은 권력을 두고 갈등하는 인물이 아니다.
- ④ 변 사또는 수탈 세력과 이에 대한 응징이라는 측면에서 이몽룡과 갈등 관계에 있다.
- ⑤ 변 사또는 권력을 두고 아전들과 경쟁하지 않았다.

8 ㉠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인 반어법을 사용한 표현이다.

▶ 오답 풀이

- ① 과장법: 사물을 실상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혹은 작게 표현함으로써 문장의 효과를 높이는 수사법 ㉠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 ② 은유법: 사물의 상대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 ㉠ 내 마음은 흰 구름이다.
- ③ 역설법: 모순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법 ㉠ 아이는 어른의 선생님이다.
- ⑤ 연쇄법: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수사법 ㉠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된다.

- 9 판소리계 소설은 평민과 양반 모두가 향유하던 문학으로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 평민층의 말투와 양반층의 말투 모두 작품에 활용되었다.

오답 풀이

- ① 고유어뿐 아니라 한자어도 다수 사용하고 있다.
 ③ 일상어를 배제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④ 이 글에는 편집자적 논평이 자주 나타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어휘들도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⑤ 제시된 부분에는 현학적인 표현이 활용되어 있지 않다.

- 10 정렬부인에는 봉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춘향을 존귀한 존재로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신분적인 한계를 벗어나 자유를 얻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유교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신분 상승을 인정받았다.
 ② 춘향의 성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④ 이 글은 춘향이 정절이라는 봉건적 윤리를 지키고 있으므로 이에 저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글은 소설이므로, 역사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32쪽

01 ④ 02 ⑤ 03 ③ 04 ㉠ 풍자 ㉡ 해학

- 01 <보기>에 따르면 판소리계 소설의 이면적 주제는 봉건적 사상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춘향은 신분제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적 질서를 뛰어넘는 진취적인 인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변화도는 몰락한 양반이 아니라 타락한 양반이다.
 ② 어사 출두 장면은 봉건적 이념의 허구성을 풍자한 것이 아니라 탐관오리의 부패를 비판한 것이다.
 ③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이몽룡이 계급적 허위의식을 지닌 것은 아니다.

- 02 「춘향전」에 삽입된 이 시는 지배층의 수탈에 고통받는 백성의 모습을 묘사한 시로, 신분적 제약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운봉은 한시를 보고 어사또의 정체를 눈치챘다.

- ② 백성을 수탈하여 사치를 부리는 지배층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③ 호화로움을 누리는 지배층과 고통받는 백성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④ 어사또는 백성을 수탈하는 지배층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이 시를 지었다.

- 03 <보기>는 확장적인 문제가 활용된 부분으로, 암행어사 출두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소재를 나열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반어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속도감 있는 문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심리 변화를 그린 것은 아니다.
 ⑤ 여러 소재를 나열하고 있지만, 시공간적 배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 04 「춘향전」은 대상인 변 사또가 저지른 악행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를 비판하며 독자의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풍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봄·봄」은 ‘나’의 엉뚱함과 모자람을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독자가 ‘나’에게 호감과 연민을 느끼게 하며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해학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33~37쪽

01 ② 02 ① 03 ④ 04 ② 05 ② 06 ① 07 ④ 08 ④
 09 ②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긴박한 상황을 전하려면 자신모리를 써야 한다. 10 ① 11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 구멍 생쥐 눈 뜨듯 하고, 12 ④ 13 ④ 14 이몽룡 15 ③ 16 ④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라)에서 ‘나’는 순박하고 세상 물정을 몰라 독자들의 호감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므로 해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17 신분제를 벗어난 인간 해방

- 01 판소리계 소설은 풍자와 해학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풍자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해학이다.

- 02 판소리계 소설은 지배층의 횡포와 서민층의 저항을 소재로 삼는다. 특히 제시된 글은 본관 사또의 화려한 생일잔치를 통해 백성에 대한 수탈을 짐작하게 하며, 앞부분 줄

거리에서도 변 사또의 폭정으로 민중들이 괴로워한다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 ② 빈부 격차로 인한 계급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빈곤한 백성들의 삶이 일부 나타나 있으나 그것이 주요 소재는 아니다.
- ④ 이 글에는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으려는 인물인 춘향이 등장하지만, 그의 경제적 성공을 소재로 한 것은 아니다.
- ⑤ 비극적인 삶에서 성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이며, 정절을 훼손당한 것도 아니다.

03 [A]는 본관 생일잔치에 모여드는 이들과 잔치 준비의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상황을 장황하게 서술하는 판소리의 확장적 문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04 (나)에서 시 짓기를 제안한 사람은 운봉이다.

05 이 글에는 변 사또의 생일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탐욕스러운 탐관오리들이 모여 있으며, 어사또는 이들을 징벌하기 위해 잠입해 있다. 이들 사이의 갈등이 이 글의 주요 갈등에 해당한다.

06 운봉은 어사또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는 점에서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파악을 잘한다고 할 수 있다.

07 ㉔은 사실과 반대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㉔은 운봉이 명하는 부분으로, 상대의 권위에 눌린 것은 아니다.
- ② ㉔은 보잘것없는 상처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에 자신만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㉔에는 언어유희가 쓰였으나 이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것이지, 유사 음운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 ⑤ ㉔은 백성의 고통을 의미한다. 백성의 희생정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08 이 글은 긍정적인 인물인 ‘춘향’과 ‘이몽룡’이 부정적인 인물인 ‘변학도’ 등을 극복하는 이야기이다.

오답 풀이

- ① 제시된 글에는 복선이 아니라, 사건이 곧바로 전개되고 있다.
- ②, ③ 이 글은 친구 권력이나 친구 세대 사이의 갈등을 다룬 것이 아니다.
- ⑤ 서로 다른 처지의 인물이 갈등을 겪고 있다.

09 [A]는 어사 출두 장면이므로 일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어울리는 장단은 자진모리 장단이라고 할 수 있다.

10 ㉑에 쓰인 표현법은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이다. 이에 해당하는 표현은, ‘말이 빠져서 이가 잘못 나왔네.’이다.

오답 풀이

- ②, ③, ④ 유사한 음운을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 ⑤ 동음이의어에 의한 언어유희다.

11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명석 구멍 생쥐 눈 뜨듯 하고,’는 부정적 인물 중 가장 큰 권력을 지닌 본관 사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의 모습을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나타내고 있다.

12 ㉔에서 증암절벽, 청송녹죽은 양반 계층의 한문 투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편집자의 판단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수절이 정절이라’는 언어유희일 뿐, 속어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 ③ ㉔에 반어법이 사용되었을 뿐, 언어유희라고 볼 수 없다.
- ⑤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13 어사또는 춘향을 반기면서도 그 본심을 숨기고 춘향의 사랑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14 ‘이화춘풍’은 표면적으로는 ‘가을’과 대비를 이루는 ‘봄바람’에 해당하며, 이면적으로는 ‘춘향을 구원하는 이몽룡’을 의미한다.

15 (라)는 우직한 ‘나’와 ‘나’를 머슴으로 착취하는 장인 사이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는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가 나타나며, 유사한 음운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 ② (나)에는 ‘어찌 아니 좋을 쓴가’와 같은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 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나), (다)에 공간적 이동이 나타나 있으나 (가), (라)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장황한 사설로 장면을 확대한 것은 (가)이다.

- 16 (라)에서 ‘나’는 우직하고 순박한 인물로, 독자들의 연민을 불러일으키며, 웃음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서술자는 본관 사또를 온화하게 그리고 있지 않다.
- ② 좌수, 별감은 풍자의 대상이지 해학의 대상은 아니다.
- ③ 정렬부인이 된 춘향은 해학과 풍자의 대상이 아니다.
- ⑤ 빙장은 ‘나’의 호령에 놀라 내달린 것이 아니다.

- 17 「춘향전」의 표면적 주제는 ‘여성의 굳은 정절’, ‘신분을 뛰어넘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이면적 주제는 ‘신분제를 벗어난 인간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

1등급 평가

38~39쪽

01 ⑤ 02 ③ 03 ③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4 [1단계] 정렬부인

[2단계] 평등사상, 인간 존중 사상

[3단계] 춘향은 신분적인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평등사상과 인간 존중 사상을 보여 주는 인물이다. 이러한 평등사상과 인간 존중 사상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춘향전이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이유에 해당한다.

- 01 <보기>는 독자가 주체적인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감상보다는 독자의 오늘날 사회에 대한 경험과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평가한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③ 작품 안에 사용된 언어유희와 열거법, 대구법의 효과를 파악한 것으로 주체적 감상과는 관련이 적다.
- ② 당시 독자에 대한 효용을 추론한 것으로 주체적 감상과는 관련이 적다.
- ④ 이 글에는 본관 사또와 좌수 별감 등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가 잘 드러나고 있지만, 어사또는 풍자의 대상이 아니다.

- 02 춘향은 겉으로는 봉건적인 유교 질서인 ‘정절’을 따르고 있으나, 이면에서는 신분제에 대해 저항한다고 볼 수 있다. 수절을 통해 천민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대우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① 춘향의 수절은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지만 이를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항거로 보기는 어렵다.
- ② 사적 이득에 대한 언급은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춘향은 신분적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에 저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춘향이 가부장적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항거하는 것은 아니다.

- 03 춘향은 평민층의 의식 성장을 보여 주는 인물에 해당하며, 정렬부인에 봉해진 것으로 보아 신분제를 극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운봉은 신분제의 동요를 보여 주는 인물이 아니다.
- ② 어사또는 봉건적인 인물로, 신분제를 헐파할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 단지 부패한 관료를 징벌할 뿐이다.
- ④ 춘향이 개인적으로 신분제를 극복하고는 있지만, 신분 제도의 헐파에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은 아니다.
- ⑤ 춘향은 유교적 윤리를 지키며 정렬부인이 되었다.

0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키워드 발견

정렬부인이 된다는 것은 춘향이 신분적인 한계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2단계: <보기> 확인 및 적용

<보기>에 제시된 유교 사상, 평등사상, 인간 존중 사상 중 춘향전이 오늘날에도 사랑을 받는 까닭은 보편적인 가치를 다룬다는 것에 있으므로 평등사상과 인간 존중 사상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춘향이 정렬부인이 되어 신분제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밝히고, ‘평등사상’, ‘인간 존중 사상’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정렬부인’, ‘평등사상’, ‘인간 존중 사상’이라는 키워드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3
‘정렬부인’, ‘평등사상’, ‘인간 존중 사상’이라는 키워드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한 경우	1

◆감점 피하기 tip

「춘향전」이 세대를 거쳐 사랑받는 까닭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므로, <보기>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사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나)에서 춘향이 신분제를 극복했다는 점을 찾아 그것이 ‘평등사상’과 ‘인간 존중 사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03 현대 시 감상하기

수라 백석

내용 확인하기

42쪽

01 ③ 02 ② 03 ③

1 ‘차디찬 밤’은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차디찬’이라는 감각적(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거미 가족이 처한 비극성을 강조한다. 이 시에서 ‘차디찬 밤’은 거미가 살아가야 할 곳이 춥고 어두운 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제시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 시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의 탄압을 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가족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거미 가족을 통해 가족 해체와 공동체의 위기를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경제적인 궁핍에 대한 언급은 이 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이 시에서 도시화로 인한 소외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 시에서 화자가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⑤ 거미가 위기를 겪지만 그것이 생태적인 원인은 아니며, 당시 사회·문화적 맥락과도 거리가 멀다.

3 시적 화자는 처음에는 무심했다가, 이후에 서러웠다가, 마지막에는 슬퍼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처음에는 ‘아모 생각 없이’ 거미를 버렸다고 되어 있다.
- ② 시적 화자가 대상을 원망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 시에서 화자가 서러움, 슬픔, 가슴이 메이는 감정 등을 느끼고 있으므로 거미 가족을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감정이 무심함으로 무너지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거미 가족을 헤어지게 만든 것에 대해 자책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지만 고독한 심정에 빠진 것은 아니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43쪽

01 ③ 02 ④

01 ‘수라’는 갑작스레 가족과 헤어져 혼란에 빠진 거미 가족의 비극성을 고조하는 시어이다. 따라서 거미 가족이 외부의 힘에 의해 해체된 비극을 ‘수라’라는 제목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거미 가족은 화자에 의해 헤어지게 된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난 이들의 삶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② 이 시에서 인간인 화자는 처음에 무심했을 뿐 이기적이지는 않았으며 추후에는 시적 대상의 처지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거미 가족이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곤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이 시에서 민족적 저항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02 이 시는 점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거미 새끼-큰 거미-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쫓아 내보내는 행위를 반복할 때마다 화자의 정서가 ‘무심함 → 서러움 → 슬픔’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시는 의식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의식의 흐름은 일정한 질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며 소설에서 많이 사용한다.
- ② 시적 대상인 거미에게 서러움, 슬픔 등을 느낄 뿐 그리워하지는 않는다.
- ③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이라는 표현에서 볼 때, 체념과 좌절의 태도보다는 거미 가족의 재회를 소망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화자가 거미를 차레로 문밖으로 쫓아 버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만, 화자의 자아 분열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소단원 평가

44~46쪽

01 ① 02 ⑤ 03 ② 04 ① 05 ④ 06 ③ 07 ④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새끼를 잃은 어미 거미의 슬픔에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08 시인은 일제 강점기에 해체된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가 거미 가족처럼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 09 ⑤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연이 점차 길어지는 것을 통해 화자의 고조되는 정서를 강조한다. 10 ㄹ 11 ③ 12 ④

- 01 이 시는 화자가 거미를 쏘아 버리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 이 시의 화자는 새끼 거미에 대해서만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져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거미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 이 시는 대립된 이미지의 반복이 아니라 화자의 감정 변화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이 시에서 상승과 하강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 ㉣ 무척 적은 새끼 거미의 외양에 대한 사실적 관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화자는 거미들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행위에 따른 주관적 감정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02 ㉠은 1연에서 3연으로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시의 특징이 정리되어야 한다. 표의 내용에 따르면 화자의 감정이 ‘무심함 → 서러움 → 슬픔’으로 점층적으로 심화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 대상에 대한 사색적 분위기는 고조되지 않는다. 시적 화자의 정서가 변하는 것이다.
- ㉡ 화자는 계속하여 거미 가족에게 관심을 투영하고 있으므로 주변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파고든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 화자는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된 상황을 슬퍼하고 있을 뿐, 외로움을 느끼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 화자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거미 가족의 비극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 03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시인이 쓴 메모 중 가족을 잃었다는 것, 거미를 내보낸 일 등은 추론할 수 있으나, 사람들이 겪은 실제 이야기가 작품에 활용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으며, ㉠, ㉡, 불순한 세력에 대한 저항감을 표현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 ㉠ 1930년대에 일제의 탄압으로 고향을 떠나거나 유랑하는 사람이 많았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시인이 썼을 메모로 가정할 수 있다.
- ㉡ 거미 가족이 서로 헤어지게 된 상황이 나타나므로 시인이 썼을 메모로 가정할 수 있다.
- ㉢ 이 시의 화자는 거미를 문밖으로 내보내며 점차 마음 아파진 일을 노래하고 있는데, 시적 화자가 시인 자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인의 경험이 녹아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04 이 시는 시적 대상인 거미를 의인화한 부분이 있고(㉠), ‘수라’라는 제목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배경은 쓰이지 않았으며(㉢), 색채 대비를 통한 이미지 대비도 나타나지 않는다(㉣). ‘차디찬 밤’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계절은 드러나지 않았다(㉤).

- 05 작품 외부의 관점에서 감상하라는 조건이 있고, 독자에게 효용을 준다는 점에 주목하여 감상한 것을 찾으라고 하였으므로, 시를 읽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기고 가족에게 무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감상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 이 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전쟁과 관련이 없으므로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 시 자체의 효용에 집중한 관점이 아니라 상호 텍스트성에 주목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 ㉢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작품 외부의 관점에서 감상하였지만 독자의 효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 ㉣ 작품 외부의 요소인 작가에 초점을 맞춰 감상하였지만 독자의 효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 06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에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 화자의 무심한 태도와 정서가 드러난다.
- ㉡, ㉢ 서러움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 ㉣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큰 거미가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리는 모습을 보고, 시적 화자가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고 슬픈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 07 큰 거미가 온 것을 보고 ‘나는 가슴이 찢릿한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새끼를 잃은 큰 거미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무심했던 감정에서 벗어나 대상에 대한 공감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 이 시에서 화자의 삶이 드러나는 부분은 없으며, ㉡이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인해 느끼는 감각도 아니다.
- ㉢ 화자가 현실에 체험한다는 근거는 없다.
- ㉣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 아니라 새끼를 잃은 어미 거미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화자가 겪었던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거미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적인 상황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과 유사하다. 따라서 [A]에서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것을 통해 시인은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9 이 시는 연이 바뀌면서 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러한 형식은 점점 아수라장으로 빠져드는 끔찍한 상황과 점점 깊어지는 화자의 탄식을 반영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3음보 등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시의 율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율격을 살려 쓴 작품으로는 1920년대의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이 있다.
- ②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이 같은 구조로 이 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③ 산문시는 형식상 시행을 나누지 않고 산문 형식으로 쓴 시이다. 이 시는 형식상 산문시가 아니다.
- ④ 시적 화자의 행동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행동이 반복될수록 걱정과 슬픔이 고조되고 있다.

10 이 시는 일제 강점기 해체되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내용 이므로 르과 가장 관련이 깊다.

오답 풀이

- ㄱ. 1930년대 후반 생명파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정신적·생명적 요소를 중시하며 생명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시 경향이 나타났다. 서정주, 유치환 등이 대표적인 작가이다.
- ㄴ. 감각적인 시어와 아름다운 리듬감을 중시하는 시 경향은 문학의 순수성과 예술성을 지향한 순수시에 대한 설명이다.
- ㄷ. 모더니즘 시에 대한 설명으로 이러한 경향의 시는 인간 문제, 도시 문명 등을 소재로 다루었다.

11 이 시에서 ‘문밖’은 거미 가족이 버려진 좁고 위험한 공간인 동시에 가족의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거미 가족은 원래 방 안에 있었으며, ‘문밖’은 방 안에 비해 척박한 공간이다.

12 ‘이 작은 것’은 방금 태어난 듯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가리킨다. 1~3연에서 시적 화자는 계속 거미를 문밖으로 끌어 버리고 있는데 이는 같은 거미가 계속 다시 들어와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거미 가족을 하나씩 문밖으로 내보낸 것이다.

1등급 평가

47쪽

01 ② 02 ②

1등급을 결정짓는 시술형 문항

03 [1단계] 무심함, 서러움, 슬픔

[2단계] 가족 공동체

[3단계] 이 시의 화자는 거미를 무심히 버렸다 그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보고 서러움을 느끼고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길 바라며 슬퍼하고 있다. 흩어진 거미 가족의 상황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과 연관되며 화자는 거미 가족에 공감하며 감정이 더욱 고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1 이 시를 한 편의 영상으로 제작한다면,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촬영할 때는 클로즈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줌아웃은 ‘카메라를 피사체에서 멀어지게 하여 화면을 확장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줌아웃하여 촬영할 경우 대상의 모습을 화면에 담기 어렵다.

02 이 시는 ‘거미’라는 자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흩어지게 된 거미 가족에 대한 슬픔과 재회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며 공동체의 소중함과 해체된 가족의 복원을 기원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화자가 거미의 처지에 공감하기는 하지만 새끼 거미는 화자를 무서워하며 달아나고 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교감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문명화로 인한 고향 상실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보드라운 종이’에는 새끼 거미에 대한 시적 화자의 연민과 배려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종이는 거미를 문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것이 지 함께 공존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⑤ 이 시에는 도시화된 농촌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03 1등급을 결정짓는 시술형 문항

◆ 1단계: 키워드 발견

시적 화자의 감정은 ‘아무 생각 없’는 무심함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새끼 거미를 찾는 어미 거미를 보고 ‘가슴이 짜릿’하며 ‘서러워한다.’ 또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것에도 서러움을 느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새끼 거미를 내려 보내며 가족끼리 만나라는 소망을 하면서 ‘슬퍼한다.’ 따라서 ‘무심함-서러움-슬픔’의 순서로 화자의 정서가 변하고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거미 가족의 해체는 일제 강점기 수탈과 탄압으로 가족과 헤어지

거나 고향을 상실했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관련성이 높다.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화자의 정서 변화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관련지어 서술한 경우	5
화자의 정서 변화를 서술하였으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련이나 역경으로만 서술한 경우	3
화자의 정서 변화만을 서술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감점 피하기 tip

〈조건〉에서 밝힌 1930년대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930년대는 일제 강점기였고,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에 시련과 역경이 컸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1930년대 가족이 해체되고 시련을 겪는 배경을 떠올리면 시적 화자의 정서가 무심함에서 서러움으로 다시 슬픔으로 감정이 고조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게 읽힌다. 즉 1930년대에 우리 민족이 가족의 해체와 시련을 겪는 모습을 떠올리며 거미 가족의 처지에 더욱 공감할 수 있다. 제시한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답안을 작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04 현대 소설 감상하기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홍길

내용 확인하기

50~57쪽

1 ③ 2 ① 3 ② 4 ④ 5 ② 6 ⑤ 7 ④ 8 ⑤ 9 ②
10 ④ 11 ⑤ 12 ③ 13 ② 14 ③ 15 ④ 16 ④ 17 ④ 18 ①
19 ③ 20 구두 21 ② 22 ② 23 ② 24 ④

1 이 글은 소설이다. 소설은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 허구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작한 글이다. 나머지는 모두 소설의 특성으로 적절하다.

2 이 글은 도시화가 진행되어 소외 계층이 발생하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이 글에서 정치적 불안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이 글에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권 씨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인물이다.
- ⑤ 이 글은 남북의 이념 대립을 다룬 작품이 아니다.

3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도시화, 산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은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다가 전과자가 되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 버린 권 씨의 사연을 통해 당시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부분으로,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4 권 씨가 ‘애써 웃는 낯’, ‘퍽 수줍어 보였다’ 등에서 볼 때, 평상시와 전혀 다른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권 씨가 어려운 부탁을 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권 씨 아내가 이미 해산하려 병원에 간 상황이므로 ‘나’가 권 씨의 아내가 조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가)에서 권 씨의 아내는 해산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다.
- ③ 권 씨가 돈을 얻기 위해 ‘나’를 협박하는 등 무리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은 부탁을 거절한 이후에 들 수 있는 생각이므로 ㉡의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는 권 씨가 아내의 병원비를 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기 전이므로 도둑질을 할 것이라고까지 미리 생각하기 어렵다.

5 구두를 닦는 행동이 마지막 자존심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였을 때, 권 씨의 구두가 놀랄 만큼 반짝거린 까닭은 어떻게든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구두를 열심히 닦았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일반적으로는 구두를 반짝거리게 닦아 신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보기>의 내용과 관련된 의미로는 볼 수 없다.

③ 권 씨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④ 바지에 양쪽 발을 번갈아 문질렀을 것이라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흠먼지로 더러워지는 것을 미리 조심했다기보다는 더러워진 것을 열심히 닦아낸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앞부분 줄거리'와 <보기>의 내용을 고려하면 권 씨는 처음부터 여러 컬레의 구두를 매우 소중히 여겼으며, '나'도 권 씨의 경제적 처지를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권 씨가 반짝거리는 구두로 자신의 변제 능력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6 '제기랄'은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쓰는 비속어이다. 평소 에 쓰지 않는 비속어를 쓸 만큼 권 씨가 절박한 심정에 빠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야속하다거나 우월감,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상대를 향한 감정인데, 권 씨에게는 그런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가 기가 죽었다면 '제기랄' 같은 어휘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7 권 씨는 '나'의 거절에 도전적인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수줍음이 돌아왔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③ 권 씨는 아내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지만, '나'는 권 씨가 끼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빚을 갚을 수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거절한다.

⑤ '나'는 권 씨가 얼굴에 진땀이 흐르고 있음에도 진땀을 훔치지 않고 연신 구두만 문지르는 모습을 보고 있다.

8 '나'는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나중에 돌려받기 어려워 것이라 생각하여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야멸차게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거절을 해 놓고 권 씨에게 연민을 느꼈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 야멸찬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다.

② '나'의 형편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십 만원은 '나'에게도 거금이어서 부담이 되었다.

③ '나'에게 부탁하면서도 자존심을 세우는 권 씨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는 돈을 빌리려는 권 씨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므로 현실의 어려움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

9 ㉠처럼 대상의 행동을 통해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간접 제시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직접 제시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전지적 작가 시점을 설명한 말이다.

④ ㉠은 '나'의 서술을 통해 권 씨의 특징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⑤ '나'는 권 씨의 행동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지만 이를 독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10 권씨의 아내가 수술받는 동안 권 씨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의사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권 씨를 탓하고 있다.

② 권 씨의 아내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전한' 위급한 상태였다.

③ '나'는 권 씨의 아내가 수술하는 동안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수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⑤ '나'는 강보에 싸여 나온 권 씨의 차남을 보고 자신의 아들을 낳았던 날을 떠올리며 감격에 빠졌다.

11 이 글에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여 수술을 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의사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① 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와 도시 재개발은 거리가 멀다.

② 갈등과 경쟁에 익숙해졌다는 내용을 수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③ 수술 보증금은 의사가 권 씨의 행색 등을 통해 판단한 것으로, 모든 환자를 불신하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불신이 만연한 세대보다는 물질만능주의 세대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위급한 수술 상황이며, 위선적 행동을 하였거나 폭력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12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으나'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의사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돈을 우선시하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3 권 씨는 다른 식구들을 깨울 생각이 없다. 따라서 지시문을 넣는다면 ‘나’를 깨우는 목소리는 매우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권 씨는 덜덜덜 떨고 있으므로 침착하고 분명한 말투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③ 날카로운 말투는 자칫 다른 식구들을 깨울 수도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권 씨는 어수룩한 강도 짓을 하고 있어서 상대를 압박하지 못하고 있다.
- ⑤ 권 씨는 ‘나’가 깨지 않아서 조바심이 났을 수는 있지만 거친 목소리로 깨우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 14 ‘미역국이었다’는 표현은 미끄러졌다는 의미이며, 이는 실패를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강도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 15 ‘나’는 강도를 배려하여 어디서 돈을 가져가라고 조언까지 해 주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강도의 자존심을 지켜 주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차)의 마지막 부분에 강도는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고 하였다.

- 16 ‘나’는 어설픈 강도의 모습을 보고 강도의 행위가 위협적이기는커녕 애교스럽다고 생각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이부자리에 식칼을 떨어뜨리고도 모르고 있는 모습이 강도의 어설픈 모습을 잘 보여 준다.
- ② 식칼을 든 손이 덜덜덜 떨리는 것을 보고 ‘나’는 무척 모자라는 강도라고 생각하였다.
- ③ 강도는 다리를 와들와들 떨다가 아이의 발을 밟고는, 칭얼거리는 아이가 깨지 않도록 토닥이다가 식칼까지 떨어뜨리고 만다.
- ⑤ 도망갈 때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의를 차려 암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모습을 보고 무섭지 않고 애교스럽다고 생각하였다.

- 17 ‘나’는 권 씨가 수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아내가 있는 병원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강도 행위를 하게 되었음을 짐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강도가 권 씨임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기 위해서 권 씨에게 그의 아내가 수술을 받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돌려서 말한 것이다. 공을 내세우려고 한 말로 보기는 어렵다.

- 18 ‘나’는 강도의 정체를 모른 척 해야 권 씨가 훗날 떳떳하게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의도로 권 씨를 대문으로 나가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권 씨를 강도로 여기고 대하여야 권 씨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훗날 권 씨를 위한 ‘나’의 배려이다.
- ③ 가족들은 잠에서 깨지 않아 권 씨가 강도 짓을 벌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
- ④ 강도가 잡히지 않게 하려는 행동과는 관련이 없다.
- ⑤ 권 씨는 아내를 위해 강도가 된 것이니 ‘나’의 가족을 해칠 염려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19 권 씨가 귀가하지 않은 것은 자기 정체를 ‘나’에게 들려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튿날 찾아간 병원에서도 그가 재차 방문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그가 아내를 간병한다는 추측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권 씨가 자책감에 휩싸여 있는 것은 글에서 확인이 불가하다.
- ④ 권 씨가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멀리 일자리를 구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 ⑤ 권 씨가 강도 행세를 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는 사실은, 이로 인해 아이들을 보기 부끄러워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20 이 글에서 상징적인 소재는 ‘구두’이다.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한다.

- 21 자신을 졸렬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서술자인 ‘나’는 자책과 반성을 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졸렬하다’는 웅충하고 천하여 서투르다는 의미이다.

- 22 권 씨에 대한 ‘나’의 태도는 그가 사라진 후 그를 찾고자 노력한 점, 그의 사정에 공감한 점 등을 통해 연민과 애정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 23 이 글은 1970년대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을 권 씨의 삶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권 씨가 강도가 된 것은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사회가 개

- 인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내몰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 ③ 이 글에서 권력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 ④ 이 글이 계층 사이의 갈등을 다룬 것은 아니다.
 - ⑤ '나'는 소시민성을 지녔지만, 스스로를 성찰하고 약자에 대해 다
시 연민과 공감을 표한다는 점에서 주된 비판 대상은 아니다.

24 이 글의 결말은 열린 결말로써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여운을 남기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권 씨의 행방에 따라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어서 행복한 결말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 ② 이 글은 완결된 결말이 아니다.
- ③ 귀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비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독자가 권 씨의 행방과 훗날의 처지를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이 글은 열린 결말로 권선징악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내신
잡단

시험 족보

59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④

01 '나'는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시민적 안락을 추구하면서도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대납해 주고, 갓 태어난 권 씨의 아이를 보며 감격하는 등 이웃에게 연민을 느끼는 인물이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돈을 걱정하는 소시민적 인물이다.
- ③ '나'는 지식인은 맞지만 권 씨를 돕는 것은 개인적인 연민과 동정에 의한 것이지 사회적 책무 때문이 아니다.
- ④ <보기>에서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가난하지만 자존심이 센 것은 권 씨에 해당한다.
- ⑤ 수술비를 대납해 준 것으로 볼 때, 물질적 가치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할 수 없다.

02 '나'는 소시민적 안락을 위해 수술비를 빌리려는 권 씨와 갈등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소시민적 안락과 약자인 권 씨를 돕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보기>에는 이러한 내적 갈등을 끝내고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 ② 인물과 사회의 갈등은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주요 갈등이기는 하지만 <보기>에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양상이 드러나 있다.
- ③, ④ 자연이나 운명과 맞서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03 작가가 병원의 행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는 경제적 약자들이 소외당하는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보기>는 가뭄을 받으면서까지 수술비를 마련해 타인을 돕는 부분으로, 소시민적 허위의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수술비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보다는 금전의 문제이다.
- ⑤ <보기>에 해당하는 갈등의 주요 요인은 수술비로, 공감과 존중의 문제는 아니다.

04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구두는 권 씨가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자존심을 상징한다. 경제적으로 몰락한 상황에서도 권 씨가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홉 켄레의 구두를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

소단원 평가

60~65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⑤ 05 ⑤ 06 ④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약자를 동정하면서도 정작 자기 이익을 지키기가 우선인 '나'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07 ① 08 ⑤ 09 ① 10 ② 11 ⑤ 12 ② 13 ④ 14 ⑤ 15** 지식인이라는 자존심을 지키며 구두 열 켄레를 소중히 하던 권 씨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채 아홉 켄레의 구두를 남기고 행방불명되는 결말을 보았을 때, 제목은 자존심마저 버리게 된 권 씨의 비참한 현실을 상징한다. **16 ②**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나'의 어설픈 배려가 권 씨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권 씨가 집을 나간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01 이 글은 사실적인 문체와 날카로운 문제의식으로 현실의 모순을 지적한 세대 소설이다. 풍자는 대상을 조롱하여 비웃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제시된 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나’와 권 씨의 대화에서 ‘나’가 권 씨의 처지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만에 하나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라는 표현을 볼 때, ‘나’는 권 씨의 처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걱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3 ‘나’는 권 씨를 인간적으로 불신하기보다는 그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권 씨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권 씨는 아내가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 ② 이제까지의 수줍음이 사라지고 ‘나’의 면전에 대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르짖는 모습과, ‘제기랄’과 같은 말을 하는 모습에서 권 씨가 평정심을 잃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나’는 돈을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말을 듣고 잠시 어리둥절해 있었다.
- ④ ‘나’는 돈을 빌려주는 어려움과,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겪을 어려움 등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

04 앞뒤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권 씨의 상황을 간접적인 제시를 통해 보여 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권 씨가 자신의 말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 ② 권 씨의 대화 목적과 반대되는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 ③ 권 씨와 ‘나’는 딱히 어색한 사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권 씨는 ‘나’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러 왔으므로 지루한 심정이라고 볼 수 없다.

05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라는 말은 책임질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거나 권 씨를 돕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06 [A]는 ‘나’의 소시민성을 비판하는 부분으로 ‘나’는 약자를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보면서도 정작 권 씨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돈을 빌려주지 않는 등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연민의 감정이 허위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가 권 씨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느끼는 인간적 연민이지 그릇된 동정심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③ [A]는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 또는 특권층의 이익을 비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A]에서 권 씨는 자신이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지식인의 나약함과 허상을 비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07 ‘나’는 개인적인 안락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웃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이중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나’는 공동체적 유대와 물질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나’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은 아니다. 소시민적 안락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공감적 능력도 지닌 인물이다.
- ③ 권 씨가 공동체적 유대를 잃었다는 근거는 없다.
- ④ 의사가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중요시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⑤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인물은 의사이고, ‘나’와 권 씨는 물질적 가치만을 좇는 것은 아니다.

08 (가)에는 ‘나’와 권 씨의 갈등이 제시되어 있고, (나)에는 ‘나’가 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가)는 ‘나’와 권 씨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 있지만 사회 부조리 고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③ (나)에는 ‘나’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나)에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 극적으로 타협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의사를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

09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란다는 것은 원장이 자기 이익을 잘 따질 줄 모르는 사람이라 돈이 없어도 환자를 우선시하길 바란다는 뜻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무너진 자존심에 대한 아쉬운 감정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고 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맥락상 다양한 지식을 갖추었다는 의미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 권 씨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 말이다.
- ④ ‘금테의 마비츠 안경’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보여 주는 데에 도움이 될 뿐, 학문적 권위와는 무관하다.
- ⑤ 줄담배를 많이 피웠다는 것은 그만큼 초조했다는 의미이지 소모적인 감정으로 피로를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다.

- 10 ‘나’는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라고 말하며, 의사가 환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지나치게 밝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는 정작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의사의 의도를 알아차리며, 권 씨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 ③ 의사는 ‘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 ④ ‘나’는 의사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으나, 의사는 ‘나’에게 감정을 지니고 있지 않다.
- ⑤ ‘나’와 의사는 권 씨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다.

- 11 (가)는 서술자인 ‘나’가 강도에 대한 인상을 주로 서술하고 있고, (나)는 강도와 대화로 소통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서술자의 눈에 비친 강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므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강도가 든 원인과 결과보다 강도의 어설픈 행동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가)는 공간적인 특수성보다는 인물에 대한 인상이 나타나 있다. (나)는 시간적 특수성이 아니라 인물 사이의 대화가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는 모두 절정 단계에 해당하며 (나)에서 위기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 12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나타난 표현으로 간접 제시가 아니라 직접 제시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서술자의 개입이 최소화된 간접 제시에 해당한다.

- 13 강도를 맞은 사람과 강도의 관계가 역전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므로 주인과 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 것처럼 사물의 경중·선후·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뀔을 이르는 말인 ‘주객전도’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이다.
- ②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③ ‘적반하장’은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다.
- ⑤ ‘호가호위’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이르는 말이다.

- 14 이 글의 결말은 권 씨의 행방불명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끝이 나서 독자들에게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이야기의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고 권 씨의 행방이 묘연하게 끝이 났다.
- ② 권 씨의 처지와 상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채 결말을 맺었다.
- ③ 부조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소재가 아니라,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인물이 나아갈 삶의 방향성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 15 권 씨가 구두를 매일 닦았던 까닭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두들을 두고 집을 나간 권 씨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진 상태일 것이다.

- 16 ‘나’는 권 씨가 돌아와 가족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에서 권 씨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자신의 어설픈 배려로 권 씨가 집을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하였다.
- ③ ‘나’는 권 씨가 집을 나간 원인을 자신이 제공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다.
- ④ ‘나’가 권 씨의 정체를 눈치챈 것을 권 씨도 알게 되어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 ⑤ ‘나’가 권 씨의 정체를 감추어 주려는 것이 오히려 이를 눈치챈 권 씨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1등급 평가

66~67쪽

01 ① 02 ⑤ 03 ③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항

04 [1단계] 1인칭 관찰자

[2단계] 연민, 동정

[3단계]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는 소시민에서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권 씨를 안타까워하며, 연민과 동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는 독자의 시선으로 이어져, 독자들도 권 씨에게 연민과 동정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

01 '나'는 권 씨와 약간의 갈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 씨와 대립각을 세우는 반동 인물은 아니다. 오히려 권 씨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02 (나)와 (다)에서 '나'는 권 씨의 아내가 병원에 가지 않자, 자신이 세를 놓은 집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권 씨에게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까 봐 거절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나'는 타인의 어려움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다소 이기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권 씨가 필요한 것은 수술 비용이므로 적은 돈이라고 하기 어렵다. '나'는 값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 권 씨에게 큰 돈을 빌려주기가 꺼려진 것이다.
- ② '나'가 권 씨에게 단호한 태도로 말을 하지만 무례하게 굴지는 않는다.
- ③ '나'가 권 씨의 아내를 걱정하는 것은 자신에게까지 피해가 미칠까 봐 염려하는 것이다.
- ④ '나'는 평범한 소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만한 수준의 걱정을 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걱정하는 비관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보기>는 권 씨가 강도로 전락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권 씨가 강도가 된 까닭은 그가 막다른 처지에 다다르도록 도움을 주지 않았던 차가운 사회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계층 간의 대립은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이 글은 무능력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보호하지 않은 사회를 문제 삼고 있다.
- ④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인물은 이 글에 등장하지 않는다. 권 씨가 비록 강도 행위를 했지만 양심을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나'가 자기 이익만 앞세우는 이로 그려진 것은 아니다.

0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이 글은 교사인 '나'의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된다. '나'는 지식인이자 소시민으로서 한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권 씨를 관찰하고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서술자 '나'는 권 씨에 대해 연민과 동정을 지니고 있다. 권 씨는 한

때 서술자인 '나'와 비슷한 처지였으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까닭에 '나'는 그에게 공감하며 연민을 느낀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물에 대한 태도를 추론하여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 권 씨를 연민과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고 서술한 경우	5
시점과 인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였으나, 독자들의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시점이나 인물에 대한 태도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 '나'는 권 씨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는 독자들이 권 씨를 바라보는 태도에 영향을 미쳐 그가 비록 강도 짓을 했더라도 그를 절대 미워할 수 없게 만든다. 오히려 그의 어설픈 강도 행각에 분노는커녕 연민이 느껴질 뿐이다. 대체로 서술자는 독자와 작중 인물 사이를 매개하는 존재여서, 서술자의 태도와 판단은 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상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느끼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독자들에게도 대상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일으키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인식한다면 답안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단원 평가

68~75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① 05 ④ 06 ③ 07 ③ 08 ④
09 ⑤ 10 ② 11 ① 12 ⑥ 13 ② 14 ⑤ 15 ② 16 ④ 17 수
절은 기생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이는 춘향이 신분적으로 제약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④ 19 ⑤ 20 ⑤ 21 ③
22 ② 23 ⑤ 24 ⑤ 25 ⑤ 26 ③

01 (가)는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비는 재를 올리며 부른 노래로, (가)의 주된 정서는 누이를 잃은 슬픔과 재회에 대한 소망이다. (나)는 정철이 관직을 잃고 은거하면서 임금에 대한 충정을 표현한 것으로, (나)의 주된 정서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다. (다)는 고려가 망한 후, 은둔하던 길재가 개경을 돌아보며 읊은 시로 (다)의 주된 정서는 사라진 왕국에 대한 한탄과 인생무상을 느끼는 것이다.

02 [A]는 종교를 통해 재회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부분이며, [B]는 죽어서라도 ‘낙월’이나 ‘구준비’가 되어 임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부분이다.

오답 풀이

- ① [A]에는 혈육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는 자세가, [B]에는 임과의 만남에 대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
- ③ [A]는 학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를 닦으며 미타찰에 가기를 기원한다는 것이다.
- ④ [A]는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 현실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으나, [B]는 세속적인 남녀의 사랑으로 현실을 극복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A]는 종교적 믿음을 통해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는 것이며, [B]에서 재회에 대한 불안과 답답함을 찾기는 어렵다. 의지가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03 (나)의 꿈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꿈에서 잠시 실현된 것이며, (다)의 꿈은 꿈처럼 허망하다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 ①, ③ (나)의 화자가 현실에서 임을 간절히 그리워하고는 있지만 꿈에 의지하거나 현실 도피를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 ②, ④ (다)의 화자는 고려가 흥성했던 과거가 마치 꿈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04 (가)는 두 명의 화자가 묻고 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나)는 거미를 문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점차 감정이 고조되는 점층적인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두 여인의 대사로 되어 있으며, (나)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는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고, (나)는 대립적인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으나 사상 전개를 이끌 만큼 구조적으로 쓰이지는 않았다.
- ⑤ (가)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 나타나 있지만, (나)는 인간사와 자연을 대비하지 않는다.

05 유학자는 충의 유교 이념을 따르는 학자로서, 임금을 원망하거나 탓할 수 없다.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 임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여성 화자를 선택한 것은 감정을 절실히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 ② 시적 화자를 모함하는 무리를 탓하는 내용은 (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시적 화자인 여인은 모든 것이 자신의 허물이라고 자책하고 있다.

③ 화자는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내 몸의 지은 죄 뉘 탓이 빠혀시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⑤ 이 작품의 작가가 유학자인 것은 맞지만 시적 화자는 임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다. 유흥을 경계하며 스스로 이별했다는 내용을 찾기는 어렵다.

06 논리적으로 어긋난 표현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역설법이다. 그러나 (가)에는 역설법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누어 심각후고 니러 안자 헤여후니’, ‘하눌히라 원망후며 사름이라 허물후라’ 등에 대구법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물 7톤 얼굴’에서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히 다 더 저든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노고’에 해가 질 녘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며 이는 애상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 ⑤ ‘엇디 다투신고’, ‘허물후라’, ‘몇 날일고’ 등에 설의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다.

07 (나)에서는 시적 대상인 거미를 의인화하고 있으며, 거미를 문밖으로 보내는 행위와 그 행위 뒤에 따르는 정서를 서술하며 점층적으로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속미인곡」에 외적의 침입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는 ‘나’가 임과 이별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속미인곡」의 한 부분이다.

09 ‘문밖’은 거미 가족이 방 안에서 쫓겨 간 차가운 공간이지만, 한편으로 재회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가족 해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또한 「수라」는 1930년대 식민지 시절 가족 공동체의 해체에 대해 쓴 시이다.

10 (가)는 판소리계 소설로서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존재한다. (나)는 현대 소설로 서술자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나’가 존재한다.

오답 풀이

- ① 판소리계 소설도, 「봄·봄」도 모두 창작 당시의 시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③, ④, ⑤ 판소리계 소설은 특정한 작가가 존재하지 않으며, 「춘향전」은 근원 설화가 시대를 거치면서 이야기가 확장된 작품이다.

- 11 (가)의 주요 갈등은 백성의 고향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본관 사또와, 이를 단죄하고자 결인으로 가장한 어사또 사이의 갈등이다.

오답 풀이

- ② 어사또는 봉건 세력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패한 관료를 징벌하려는 것이다. 봉건과 반봉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끼리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신분적 제약을 벗어나려는 것은 춘향이 아닌 어사또가 아니다.
- ⑤ 본관 사또와 다른 수령들이 일신의 안락을 추구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어사또가 이를 가로채려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 12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이 드러난 부분은 ㉔ ‘어찌 아니 명관인가’이다. 이때 서술자의 평가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본관 사또가 명관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임을 표현한 것이다.

- 13 해학은 정보의 불균등에서 일어날 수 있다. 독자들은 모두 아는 정보를 등장인물만 모를 경우, 독자들은 그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여기면서도 연민과 동정을 느끼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나’를 어리숙한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독자에게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며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언어유희도 해학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이 글에는 상황적 아이러니가 등장하지 않는다.
- ④ 사랑을 얻으려는 순수성보다는 ‘나’의 어리숙함이 더 부각되고 있다.
- ⑤ 장인은 ‘나’의 어리숙함을 교활하게 이용하고 있는 인물로 선하고 평가할 수 없다.

- 14 김유정의 「봄·봄」에서 장인은 수탈 대상이 아니라 데릴사위를 착취하는 수탈의 주체이다. 나머지 내용은 모두 적절한 조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② 장인은 점순이와의 성례를 빌미로 ‘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장인을 ‘유달리 착한’ 인물로 생각하는 ‘나’에게 해 줄 적절한 조언이다.
- ③, ④ 〈보기〉에 따르면 내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고 밀린 돈을 받으라는 조언은 적절하다.

- 15 「춘향전」의 서술자는 작중 인물로 등장하지 않지만, (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서술자는 ‘나’로 작중 인물로 등장하여 주인공 권 씨를 관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의 서술자 모두 인물에 대해 주관적 서술하고 있다.
- ③ (나)의 서술자는 1인칭 관찰자로서 인물과 상황에 대해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관찰이라는 범주 안에서 알고 있을 뿐이다.
- ④ (가)의 서술자는 인물과 상황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가)의 서술자는 상황과 인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의 서술자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 16 [A]에서 춘향은 어사또가 수청을 요구하자 낙담하고 있고, [B]에서 권 씨는 태아가 뱃줄을 목에 감고 있다는 사실에 낙담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춘향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권 씨 역시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등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② 권 씨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만 회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 ③ 권 씨는 [B] 부분에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까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자존심을 포기하거나 의지를 접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춘향은 ‘어서 바빠 죽여 주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 17 춘향은 관기의 딸로, 본관 사또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는 천민 신분이며, 정절은 사대부 집안의 여인에게 요구되던 덕목이다. 따라서 춘향이 사또의 명을 거부하고 수절을 하려 하는 것은 기생이라는 신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려 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 18 권 씨는 망설이다가 상대에게 비굴해지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단도직입적으로 부탁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권 씨가 ‘나’의 말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전하고는 있으나 이는 인사치레이지 아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말을 꺼내기 어려운 이후에 보인 태도도 아니다.
- ② 사나운 기세로 말하며 ‘제기랄’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의 모습으로 볼 때 감정을 절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돈을 빌려 달라는 메시지를 돌려 전달하지 않고 명확히 전달했다.
- ⑤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전까지 망설이던 모습을 보면, 본의 아니게 튀어나온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은 이득을 도모하는 얼굴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가)에서 시적 화자는 거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점층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나)의 서술자는 돈만 우선시하는 의사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 부분에 환희의 감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나)는 소설로,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③ (나)는 공간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에서 창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21 ‘차디찬 밤’에서 ‘밤’은 방향성을 잃기 쉬운 시간이며, ‘차디찬’이라는 감각은 거미들이 겪을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2 ㉠에서는 위급한 환자를 두고도 병원에서 보증금이 올 때까지 수술 준비만 해 두고 수술을 해 주지 않은 비인간적인 상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생명보다 돈을 중시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아내가 수술받을 수 있음에도 권 씨를 기다린 것은 아니다.
- ③, ⑤ 병원에서는 권 씨가 돈을 마련해 오면 바로 수술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것이다.
- ④ 수술 보증금은 병원의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 권 씨가 저항하기는 어렵다.

23 ㉢에서 ‘나’는 수술비를 받아야만 애를 꺼내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한편으로, 어떻게든 아버지가 되려고 수술비를 융통하려 애쓰는 권 씨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4 (가), (나)에서 어리숙한 ‘나’와 어리숙한 강도는 모두 독자에게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킨다.

오답 풀이

- ① 강도는 상대를 속이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들켰다.
- ② ‘나’는 공격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질까지 하려는 권 씨가 방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나’는 의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도도 의존적인 성격으로 볼 수 없다.
- ④ ‘나’와 강도는 모두 거칠고 폭력적인 인물로 보기 어렵다.

25 제목이 ‘봄’이 아니고 ‘봄·봄’인 것은 상황의 반복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제목이 암시하고 있다. ‘나’는 성례를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 따르면 성례는 어려울 것이다.
- ② ‘나’는 어리석고 우직한 성격으로 이곳을 떠나기 어려울 것이다.
- ③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될 것이므로 신뢰가 쌓일 것이라는 추측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채 화해를 반복하겠지만 두 사람이 파멸할 것이라고 추측할 만한 근거는 없다.

26 강도(권 씨)는 ‘나’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운 처지를 진정으로 도우려 하는 이웃이 없다는 걸 느꼈다. 그러므로 ㉡이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문제 해결의 지혜

01 논증하는 글 쓰기

◀ 당신은 개를 키울 자격이 있나요?

내용 확인하기

80~86쪽

1 ② 2 ④ 3 ③ 4 ③ 5 ② 6 ③ 7 ⑤ 8 ④ 9 ③ 10 ④
11 ① 12 유비 논증 13 ④ 14 ③ 15 ③ 16 ② 17 ④ 18 ④
19 ③ 20 ② 21 ③

- 1 소민이는 유기견에 관한 여러 가지 매체 자료를 보고 최근 유기견이 계속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증하는 글을 쓰기로 마음 먹었다.
- 2 소민이가 살펴본 신문 기사는 유기된 동물이 증가하여 지자체 동물 보호소가 포화 상태임을 알리고 있다. 신문 기사에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어 문제 상황을 생생한 이미지로 전달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3 소민이의 말에서 ‘개에 관한 지식과 책임감 없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해마다 많은 유기견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반려견에 대한 지식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답 풀이

- ① 유기견 보호 시설이 포화 상태인 것은 맞지만 이는 유기견이 많이 발생한 결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 방안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 ② 유기견 문제를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은 맞지만,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해결 방안으로 부적절하다.
- ④ 유기견 문제를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지는 않았다.
- ⑤ 반려견을 쉽게 버려서 발생하는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를 쉽게 입양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 4 소민이의 글쓰기 계획을 통해 지역 주민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답 풀이

- ① 소민이는 많은 사람이 보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매체로 선택하였는데 해당 매체는 특히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쓰기 태도를 필요로 한다.
- ② 소민이는 유기견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 쓰기를 선택하였다.
- ④ 소민이는 글을 통해 유기견이 증가하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 의무화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소민이는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려고 한다.

- 5 글쓰기 계획에서 고려하고 있는 쓰기 맥락은 ‘주제, 목적, 독자, 매체’이다.
- 6 ㉠은 논증하는 글을 쓰는 것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쓰기 맥락이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의 고려 없이 인쇄 매체를 선택해 글쓰기를 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7 ‘자료 5’는 연도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현황을 통해 개 물림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지만, 그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 답 풀이

- ① ‘자료 1’은 반려견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묻는 온라인 게시판을 보여 주는 자료로서, 이를 통해 반려견을 키우는 데도 지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② ‘자료 2’는 반려동물 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서,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소음과 관련한 피해가 꾸준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자료 3’은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이 의무화된 독일의 사례를 보여 주는 자료로서, 이를 통해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이 의무화되면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자료 4’는 반려견을 키우는 데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됨을 보여 주는 자료로서, 이를 통해 반려견을 키우는 것과 연관된 환경 오염 문제를 알 수 있다.

- 8 소민이는 ‘자료 4’와 관련하여 “반려견과 관련된 자료가지만 쓰기 맥락에 맞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는 ‘자료 4’가 반려견이라는 글의 화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반려견과 연관된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어,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의 의무화라는 글의 주장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① 소민이는 '자료 4'가 반려견이라는 글의 화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고 있다.
- ② 소민이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글의 예상 독자로 삼지는 않았다.
- ③ 소민이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매체로 선택해 글을 쓰려 하지만 '자료 4'가 해당 매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⑤ 소민이는 반려견이 아니라 유기견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

9 수집한 자료를 선별하여 내용을 생성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에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자료인지 여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자료를 활용하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자료 외의 다른 자료를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0 소민이는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 글의 개요를 작성하였는데, 본문에서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이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준비된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키우게 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무책임한 보호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로 개 몰림 사고나 반려동물 소음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11 소민이는 '본론 2'에서 구체적인 여러 사례를 제시하여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귀납 논증은 구체적 사례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다.

오답 풀이

- ② 일반적 원리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연역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유사한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유비 논증 방법이다.
- ④ 독자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논리적 논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드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라는 논증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논증 방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12 소민이는 내용을 조직하면서 독자의 반론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고자 한다.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 의무화라는 방안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겠냐라는 독자의 예상 반론에 대해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는 유비 논증 방법을 활용하여 반박하고자 한다.

13 소민이가 쓴 글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주장을 담은 논증하는 글로,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 의무화라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준비가 안 된 채로 반려견을 키우다 반려견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유기하는 문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14 소민이는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글쓰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소민이가 생각한 문제의 원인은 준비가 안 된 채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반려견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주위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시한 해결 방안은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 의무화이다.

15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유기견 발생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이다. 이 글에서 ㉠은 무책임한 보호자가 반려견을 유기하여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16 소민이는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의 의무화를 주장하며 독일의 한 지역에서 이 자격시험이 시행되어 효과가 있었던 것을 반론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독일이 전국적으로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도입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 소민이는 마지막에 독자에게 질문을 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독자가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질문으로 글을 마무리하면서 독자에게 여운과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 ② 질문을 통해 독자에게 개를 키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책임감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면서 독자가 글의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독자가 자신은 과연 반려견을 키울 역량이 있는지 답하며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⑤ 독자가 자신의 상황을 떠올려 보며 글의 주장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를 키울 준비와 책임감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18 소민이는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논증하는 글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삭제하였고, 유비 논증을 강화하기 위해 문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문단의 순서를 재배열하지는 않았다.

19 소민이는 완성한 글을 자신이 속한 지역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려 공유하였다. 이는 자신의 주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주고받아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촉구하기 위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20 ‘우리 동네 지킴이’는 자신의 개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며 소민이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21 ‘방긋’은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이 아니라 반려견 보유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방긋’은 ‘나라 사랑’이 주장하는 반려견 보유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 ② ‘방긋’은 ‘~사람이네’, ‘~너무하지!’ 등 반말을 사용하며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 ④ ‘방긋’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반려견 보유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 ⑤ ‘방긋’은 반려견 보유세의 도입이 보호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오히려 유기견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반론을 펼치고 있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88쪽

01 ③ 02 ⑤ 03 연역 논증 04 ③ 05 ⑤

01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는 논증 요소 중 근거이다.

- ① 주장은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라고 생각한다.’에 해당한다.
- ② 이유는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이다.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이 글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하기 때문이다.’에 해당한다.
- ④ 예상 반론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예상되는 반대 의견이다.
- ⑤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02 논증하는 글을 쓸 때는 주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논증 방법 중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것은 귀납 논증으로, 논증하는 글을 쓸 때 귀납 논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효과적인 논증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03 일반적 원리나 법칙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법은 연역 논증이다.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 되므로 거짓된 전제를 기반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04 논증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용을 조직할 때는 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관적인 요인인 이유와 객관적 자료인 근거를 모두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05 글을 쓸 때는 자신의 생각 등을 진솔하게 쓰는 개인적 쓰기 윤리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함부로 변형하여 쓰는 것도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 특히 오늘날 글쓰기 환경은 많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매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쓰기 윤리의 준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01 ③ 02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03 ②**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자료 4'는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주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04 ③ 05 ② 06 ② 07 ② 08 ② 09 ② 10 ⑤**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논증하는 글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작문 관습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01 소민이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글을 써서 자신의 주장을 알리려고 한다.

오답 풀이

- ① 소민이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 ② 문자, 표, 사진 등이 결합된 복합 양식 자료를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글에 첨부하겠다는 계획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소민이는 자신의 주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매체로 선정하였을 것이다. 자신이 쓴 글을 다수에게 평가받고자 하는 목적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나)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수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자료 2'는 반려동물 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이고, '자료 5'는 개 물림 환자 이송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이 두 자료는 모두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소민이는 이 두 자료를 근거로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이유)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주장)고 논증하는 글을 쓸 수 있다.

03 소민이는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화제와의 관련성,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등을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 '자료 4'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평가 과정에서 출처가 공신력이 있어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소민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 ③ 소민이는 '자료 4'가 반려견과 관련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 ④ 소민이는 '자료 4'가 쓰기 맥락 즉 글의 목적과 주장에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⑤ 소민이는 '자료 4'를 삭제하는 대신 유기견 발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고자 하였다.

04 글을 실을 매체를 분석하여 그에 맞게 표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표현하기' 단계에서 고려할 일이다. 또한 글의 수준은 매체보다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독자의 수준에 맞게 써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논증하는 글의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주장, 이유, 근거에 따라 논증의 구조를 탄탄하게 세우야 한다.
- ② 논증하는 글의 작문 관습에 맞게 '서론-본론-결론'으로 나누어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 ④ '자료 2', '자료 5'와 같이 출처가 명확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 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 ⑤ '자료 1'에는 반려견을 기를 때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구체적 사례들이 나타나 있다.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 내는 것을 귀납 논증이라 하는데, 이와 같이 적절한 논증 방법을 활용하여 논증하는 글을 쓸 수 있다.

05 글쓰기를 할 때는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논증하는 글을 쓸 때에 내용 면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드러나도록 쓰고, 형식 면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기>의 개요에서는 본론이 아니라 서론에서 반려견 보호자가 되기 위해 많은 준비와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06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소음과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반려동물로 인한 가장 큰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를 인용해 2022년 한 해에 8만 마리가 넘는 유기견이 발생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③ (나)에서 매년 발생하는 유기견을 보호하는 공간과 인력이 점점 부족해 구조된 유기견들은 10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대부분 안락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 반려견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 반려견과 관련한 지식을 질문하는 글이 많은 것은 반려견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보호자가 많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반려견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⑤ (가)에서 귀여운 외모와 행동만 보고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으로 실제로 준비가 안 된 채로 반려견을 키우다가 유기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07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떠올린 생각 중 반려견을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준비 없이 반려견을 키우다 유기하는 상황이 최근 늘어난 것만 언급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유기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공동체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 ③ (마)에서 반려견 보호자의 역량을 키우는 문제는 사회적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 ④ (마)에서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 의무화를 통해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반려견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⑤ (나)와 (다)에서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반려견 보호자의 역량 부족으로 벌어지는 여러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08 이 글에서는 자격시험 도입으로 유기견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는 보았지만, 유기견을 보호하는 공간과 인력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내용을 통해 유기견 증가라는 시의성 있는 문제를 글쓰기의 화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다)에서는 보호자가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계 수치들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라)에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독일의 사례를 들어 유비 논증을 활용하여 반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마)에서 질문으로 글을 끝맺으며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준비와 책임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 (라)에서는 예상 반론으로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 의무화로 반려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여서 개 물림 사고가 실제 줄어 들었던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우리나라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유비 논증을 활용하여 반박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인 논증 방법은 연역 논증이다.
- ③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은 귀납 논증이다.
- ④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연역 논증의 예이다.

⑤ ‘참새도 알을 낳고 오리도 알을 낳는다. 참새와 오리는 새이다. 따라서 새는 알을 낳는다.’는 귀납 논증의 예이다.

10 ㉠은 반려견의 사랑스러움을 주관적으로 쓴 문학적인 표현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논증하는 글의 작문 관습에 맞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문학적인 표현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에는 적절하지만 객관적인 글에는 적절하지 않다.
- ② 논증하는 글은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기보다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 ③ 구체적인 묘사는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기능을 할 때도 있으나 논증하는 글의 작문 관습에는 맞지 않는다.
- ④ 신뢰성은 자료가 믿을 만한지에 대한 기준으로, 문학적인 표현과 글의 신뢰성은 관련이 적다.

1등급 평가

93쪽

01 ⑤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2 [1단계] 통계 자료

[2단계] 구체적, 일반적, 귀납

[3단계] 반려동물 소음 민원과 개 물림 사고와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일반적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낸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

01 (가)의 논증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장: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

이유: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이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근거 1: 반려견 관리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질문하는 온라인 게시판

근거 2: 유기견 발생 현황 자료

따라서 ㉠에는 많은 보호자들이 반려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강아지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반려견 산책의 효과 자체는 (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 ② 반려견 보호자들이 반려견 지식을 공유하는 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반려견의 건강과는 관련이 없다.
- ③ (가)에 나타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는 2022년의 유기견 발생 수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매년 8만 마리가 증가한다고 정리할 수 없다.
- ④ 구조된 유기견들이 일정 기간 후에 안락사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02 1등급을 결정짓는 **사실형 문지기**

◆ 1단계: 키워드 발견

(나)에서의 결론은 보호자가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소방청의 개 물림 사고 관련 통계 자료와 서울특별시의 반려동물 소음 민원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에서 결론이 되는 일반적 사실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귀납 논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전제와 결론을 적절하게 나누어 분석하였고, 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식을 근거로 논증 방법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5
전제와 결론을 적절하게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식을 근거로 논증 방법을 정확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전제와 결론을 적절하게 나누어 분석하지 못하고, 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근거로 들지 못한 채 논증 방법만 정확히 제시한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나)에서 논증의 결론은 보호자가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나)의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되어 등장하지만 논증의 결론으로서 도출된 것이다. (나)에서 결론으로 제시된 사실과 전제로서 활용되는 사실을 잘 구분하여야 한다.

02 지혜롭게 협상하기

☞ 우리 학교 아래로 고속 철도가 지나간다고?

내용 확인하기

95~100쪽

1 ③ 2 ④ 3 ③ 4 ④ 5 ⑤ 6 ④ 7 ⑤ 8 ③ 9 ② 10 ③
11 ① 12 ③ 13 ⑤ 14 ③ 15 ③ 16 ③

1 ‘고속 철도 공사 계획’에 따르면 고속 철도는 수목산 국립공원의 일부를 지하로 통과한다.

2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은 안전이 확보된 방법으로 공사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 위원회의 최소 요구 사항이다.

오답 풀이

- ① 수목산 국립공원 지하는 공사 구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최소 요구 사항을 갖고 있다.
- ② 반대 위원회는 수목산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 ③ 반대 위원회는 수목 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 ⑤ 반대 위원회에는 공사와 운행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지역 주민의 고속 철도 이용 증대를 위해 홍보하겠다는 대안을 갖고 있다.

3 추진 위원회는 수목산 국립공원 공사 구간을 변경하는 것보다 학교와 주거지의 공사 구간을 변경하는 것이 2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최소 요구 사항을 지니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추진 위원회는 고속 철도 공사는 국가 차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 ② 추진 위원회는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최소 요구 사항을 지니고 있다.
- ④ 추진 위원회는 지하 터널 구간의 최소 운행 속력은 200km/h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최소 요구 사항을 지니고 있다.
- ⑤ 추진 위원회는 공사 때문에 생기는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주민들이 고속 철도를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대안을 지니고 있다.

4 협상의 ‘시작하기’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의 요구 사

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조정하기’에서 이루어진다.

5 반대 위원회는 고속 철도 공사가 야기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교육 환경 평가서의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으나 공사가 끝나더라도 고속 열차 운행으로 인한 땅 꺼짐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6 반대 위원회의 우려를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에 대하여 사과하고 있다.

7 수목산 국립 공원 지하 터널 공사 구간 변경 제안에 대한 반박이다. 고속 철도 공사의 국립 공원에 관한 환경 영향 평가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대기 오염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어진 반대 위원회의 발언인 ‘지금 환경 오염 문제가 아니라 국립 공원의 생태계 보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국립 공원의 환경 오염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보호가 쟁점을 알 수 있다.
- ② 추진 위원회가 제시한 대기 오염을 줄이는 효과는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여 도로의 차량이 감소한다는 대체 효과가 전제된 것이다.
- ③ 추진 위원회는 고속 철도 공사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중 하나로 대기 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고속 철도가 대기 오염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음 문장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8 반대 위원회는 수목산 국립 공원 지하를 통과하는 고속 철도 공사를 하면 이로 인해 철새 도래지 및 법정 보호 동물의 서식지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9 국립 공원의 공사 구간 변경을 요구하는 반대 위원회에 대해 추진 위원회는 공사 비용 상승 등의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하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과 우려를 반영해 양보한다. 그리고 양보한 대가로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은 유지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수목산 국립 공원 지하 터널 공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 반대 위원회와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추진 위원회의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 ③ 수목산 국립 공원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절대 현재 공사 구간 설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위원회의 입장과 우려를 이해한다고 표현하였다.
- ④ 반대 위원회에 수목산 국립 공원의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양보를 하고 그 대신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은 유지하게 해 달라고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인 반대 위원회의 요구를 그대로 실행하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든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10 추진 위원회는 학교와 주거지의 공사 구간 변경이 국립 공원의 공사 구간 변경보다 더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국립 공원의 공사 구간을 변경하여 양보하고 대신 학교와 주거지의 공사 구간은 유지하는 선택을 하였다. 추진 위원회가 자신들의 최소 요구 사항을 지키려는 동기가 숨겨져 있다.

11 반대 위원회는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공사 구간 유지라는 요구를 수용하면서 대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당 구간의 공사 공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12 추진 위원회는 일반 열차의 평균 속력으로 낮춰서 운행하는 것은 고속 철도의 취지가 무색하니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속 철도로서의 최저 속력은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해야 하는 최소 요구 사항으로 설정하고 있다.

13 추진 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고속 철도 운영 사례들을 제시하며 고속 철도로서의 최저 속력인 200km/h가 주변의 안전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

14 셔틀버스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오답 풀이

- ① 셔틀버스는 공사의 지연이 아니라 공사에 따른 불편함과 불안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제공된다.
- ② 셔틀버스는 고속 철도 이용 고객을 위한 것으로 공사가 끝나고 고속 철도 정차 역과 수목구 사이에 운행될 것이다.

- ④ 일정 수 이상의 이용객을 확인하기 위해 고속 철도 개통 후 3개월 동안의 이용객 수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 횟수를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⑤ 지역 주민들에게 고속 철도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주기 위한 것은 장학금 지급이다.

15 합의안에는 수목산 국립 공원의 지하 터널 공사 구간에서의 공법 변경 문제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수목산 국립 공원의 지하는 공사 구간에서 빠지게 되었다.

16 협상 참여자는 모두 상대방이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에서 합의된 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였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102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④ 05 ③

- 01** 협상 참여자들은 협상을 통해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 사항을 모두 관철하기보다는 서로 양보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 02** 협상은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다.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갈등의 과정에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 03**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정하는 협상의 단계는 '조정하기'이다.
- 04** 사회적 소통 과정이므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발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협상을 할 때는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05 수목산 국립 공원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대 위원회는 수목산 국립 공원 지하 터널 공사 구간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최소 요구 사항으로 정하였다.

소단원 평가

103~106쪽

01 ②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수목산 국립 공원 지하는 공사 구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02** ④ **03** ④ **04** ③ **05** ②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철도 사업을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지 않을까요?'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 불쾌감을 주는 발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6** ⑤ **07** 먼저 양보를 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에게도 양보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08** ④ **09** ④ **10** ④

01 반대 위원회는 수목산 국립 공원의 생태계 파괴와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속 철도 공사와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며 공사 구간 변경, 공사 공법 변경, 운행 속력 변경 등을 제안할 것이다. 고속 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것은 (나)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2 추진 위원회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고속 철도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고속 철도 공사의 경제적 이익과 그 파급 효과를 제시하며 공사의 필요성을 내세울 것이다.

03 고속 철도 공사와 관련하여 두 위원회는 입장, 최소 요구 사항, 대안을 미리 정하고 있다. 협상 자격을 입증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두 위원회는 공사 계획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 ② 공사 계획 중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을 미리 파악하여 공사 구간, 지하 터널 구간의 최소 운행 속력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 ③ 철도 공사 때문에 생기는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고속 철도를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안도 준비하고 있다.
- ⑤ 쟁점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없는 최소 요구 사항을 정리하였다.

04 이 글은 고속 철도 공사에 대한 협상 담화이다. 협상은 갈등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조정과 타협을 거쳐 합의를 이루는 담화이다.

오답 풀이

- ① 한 사람이 다수의 청중을 앞에 두고 설득하는 것은 연설이다.
- ② 한 사람이 다수의 청중을 앞에 두고 새로운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은 발표이다.
- ④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한 후 그중 최선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토의이다.
- ⑤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는 주제와 관련해 양측이 자신의 입장을 타당한 논거로 제시하고 청중의 평가를 받는 것은 토론이다.

05 ㉠에서는 정확한 근거 없이 땅 꺼짐 현상이라는 극단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며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교육 환경 평가서는 학교 주변에서 도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적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③ 땅 꺼짐 현상과 같은 위험을 제시한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출처를 요구하며 반박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우려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해 불쾌감을 주고 있다.
- ⑤ 상대방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 공감해 주면서 고속 철도 개통 시의 편익을 설명하고 있다.

06 추진 위원회는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의 안전성에 대한 반대 위원회의 우려를 이해하고 발파 공법을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구간에서만 진동이 없는 공법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오답 풀이

- ① 추진 위원회는 국립 공원 공사에 대한 반대 위원회의 입장과 우려를 이해하고 국립 공원 지하 터널 공사 구간을 동측 농경지를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양보를 하였다.
- ② 추진 위원회는 민원 발생의 우려를 인정하고 공사 공법을 일부 구간에서만 변경하는 절충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 ③ 반대 위원회는 지하 터널 구간 유지에 관한 추진 위원회의 입장을 이해하고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다.
- ④ 추진 위원회는 발파 공법과 관련해 반대 위원회가 제기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고 변경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학교와 거주지 구간만 공사 공법을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07 추진 위원회가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수목산 국립 공원을 피해 동측 농경지를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하겠다고

양보한 이유는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상대방에게도 양보를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08 추진 위원회는 상대방의 편의 제공 요구를 받아들였다. 고속 철도 접근성 개선을 언급한 것은 이점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보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추진 위원회는 각국의 수많은 고속 철도 운영 사례를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한다.
- ② 추진 위원회는 합의가 된 사항을 합의안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 ③ 공사에 협조해 주는 점을 고려해 고속 철도를 이용하는 수목주민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⑤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이 지역의 고속 철도 이용 고객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지만 일정 수 이상의 이용객이 확인되어야 운행의 의미가 있으므로 고속 철도 개통 후 3개월 동안의 이용객 수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 횟수를 조정하겠다고 조정안을 냈다.

09 반대 위원회는 추진 위원회가 제시한 각국의 수많은 고속 철도 운영 사례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고속 철도의 속력을 200km/h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였다.

10 불편을 감수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속 철도 운행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수목 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시간 단위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지역 신문에 홍보하는 것은 불편에 따른 보상은 아니다.

1등급 평가

107쪽

01 ㉠

1등급을 결정짓는 **사건형 문제**

02 [1단계] 변경, 유지

[2단계] 학교와 주거지 지하 터널 공사 구간 유지, 국립 공원 지하 터널 공사 구간 변경

[3단계] 국립 공원의 공사 구간을 농경지 쪽으로 변경하는 것은 추진 위원회가 양보한 것이고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공사 구간을 유지하는 것은 반대 위원회가 양보한 것이다.

01 ㉠은 고속 철도 공사와 운행으로 인해 수목산 국립 공원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수목산 국립 공원의 지하를 통과하는 공사 구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소 요구 사항을 제시한 발화이다.

오답 풀이

- ① ㉠은 고속 철도 운행이 아니라 고속 철도 공사 구간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발화이다.
- ② ㉠은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발화로 상대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은 고속 철도 공사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현행 계획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발화이다.
- ④ ㉠은 양보하기 어려운 최소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발화로 양보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는 발화가 아니다.

02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공사 구간 변경과 관련하여 두 위원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협상 과정에서 국립 공원의 공사 구간 변경과 학교와 주거지의 공사 구간 유지가 어떻게 타협되었는지 이해하며 서술해야 한다. 반대 위원회는 학교와 주거지의 공사 구간을 유지하도록 양보하는데 동의하였고 추진 위원회는 국립 공원의 공사 구간을 변경하도록 양보하는데 동의하였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합의한 대안이 드러나고, 두 위원회가 각각 양보한 것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
합의한 대안이 드러나게 썼으나, 두 위원회가 양보한 것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3
합의한 대안이 드러나지 않게 썼거나, 두 위원회가 양보한 것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협상에서 합의는 참여자들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쓸 때에 두 위원회가 각 쟁점에서 서로 무엇을 양보하고 얻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공사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쟁점에서 반대 위원회는 수목산 국립 공원의 공사 구간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최소 요구 사항을 얻은 대신 학교와 주거지의 공사 구간을 유지하도록 양보하였다. 추진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학교와 주거지의 공사 구간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최소 요구 사항을 얻은 대신 수목산 국립 공원의 공사 구간을 변경하도록 양보한 것이다.

대단원 평가

108~113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③ 05 ③ 06 ② 07 ⑤ 08 ②
09 ③ 10 ③ 11 ④ 12 ③ 13 ③ 14 ③ 15 ⑤ 16 ③

01 이 글에서 유기견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은 없다. (가)는 유기견 발생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나)는 유기견 발생의 구체적 현황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이다.

오답 풀이

- ① 소민이는 유기견과 관련된 (가) 신문 기사, (나) 통계 자료에 주목하였다.
- ② 유기견에 대한 신문 기사와 통계 자료를 통해 많은 유기견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소민이는 유기견이 발생하는 원인이 개에 관한 지식과 책임감이 없이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 ⑤ 신문 기사, 통계 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민이는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02 소민이는 유기견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정하였지만 글을 쓰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미 주장을 정하였으므로 주장을 명확하게 설정하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인 이유와 객관적 자료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③ 글쓰기 계획을 세울 때는 글을 전달할 매체를 정하고 그 매체의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 ④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논증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 ⑤ 글을 쓰기 전에 예상 독자를 정하여 분석하고 그에 맞는 쓰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03 이 글에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마)에서 ‘당신은 개를 키울 자격이 있나요?’라는 질문으로 글을 마무리하며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나)에서 반려견 관련 온라인 게시판의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반려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문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 ④ 농림축산검역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등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⑤ (라)에서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해 ‘반려견과 관련한 문제를 보호자 자격시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반론을 예상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 04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은 반려견의 보호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보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자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오답 풀이

- ① (라)에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② 반려견 보호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므로 대상은 반려견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 ④ (가)에서 반려견을 유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⑤ (나)에서 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05 ⑦처럼 지나치게 문학적 표현은 논증하는 글의 작문 관습에 맞지 않으므로 단어를 재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논증하는 글의 종류에 어울리는 표현인지 점검할 수 있다.
- ② 논증하는 글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표현을 쓴다는 작문 관습에 따라 고쳐 쓸 수 있다.
- ④ 반려견의 외모와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해당 표현이 논증하는 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⑤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글의 표현을 점검한 것은 공동체 차원의 의사소통이라는 글쓰기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 06 <보기>의 문장은 자격시험 실시 후 개 물림 사고가 감소한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도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시행한다면 반려견과 관련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이 문장을 추가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유비 논증을 강화할 수 있다.

- 07 이 글에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추가 협상을 통해 요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추진 위원회는 국립 공원 지하의 공사 구간을 변경하라는 반대 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였지만 이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학교와 거주지 지하의 공사 구간 변경으로 인한 더 큰 손해의 발생을 막기 위해 국립 공원 지하의 공사 구간 변경 요구를 수용한 것뿐이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는 수목구의 고속 철도 공사 계획이라는 구체적 갈등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② 이 글에서 추진 위원회와 반대 위원회는 ‘고속 철도 공사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쟁점에 대하여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 ③, ④ 추진 위원회는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수목산 국립 공원의 공사 구간을 변경하도록 양보하며 대신 자신들의 최소 요구 사항인 학교와 주거지의 공사 구간은 유지해 달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 08 이 글에서 협상 참여자들은 모두 상대방의 입장과 주장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반대 위원회는 추진 위원회의 발언을 듣고 ‘국가 차원의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추진 위원회는 반대 위원회의 발언을 듣고 ‘네, 반대 위원회의 입장과 우려하시는 바를 이해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 09 <보기>의 쟁점과 관련하여 추진 위원회는 생태계 훼손 우려를 인정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측 농경지를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하자는 대안을 수용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추진 위원회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였다.
- ② 반대 위원회는 수목산 국립 공원의 환경 오염이 아니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공사 구간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 ④ 추진 위원회는 공사 구간의 변경이 야기할 경제적 손해를 언급하였지만 상대방의 공사 구간 변경 요구를 수용하였다.
- ⑤ 농경지가 있는 동측으로 공사 구간을 변경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은 추진 위원회가 아니라 반대 위원회이다.

- 10 ㉔은 상대가 논점에서 벗어난 것을 지적하는 발화이다. 고속 철도 공사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추진 위원회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
- ② 철도 공사로 인해 오염 물질이 얼마나 감소할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고속 철도 공사의 장점을 강조하였다.
- ④ 추진 위원회는 반대 위원회의 요구대로 하였을 때 어떤 경제적 손실이 생길지 언급하며 난색을 표했다.
- ⑤ 반대 위원회는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은 물론 공사 이후에도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여 수목산 국립 공원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현재의 공사 구간을 절대 받아들이 수 없다고 자신들의 최소 요구 사항을 강경하게 전달하였다.

11 협상의 결과는 구두로 남기기보다 이 글처럼 문서로 작성하여 합의된 의무와 약속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합의 사항 2’에서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공사 구간 유지와 공사 공법의 변경은 반대 위원회와 추진 위원회의 조정과 양보를 통해 얻어진 타협안이다.

오답 풀이

- ① 수목산 국립 공원 지하를 지나는 고속 철도 공사 구간의 변경은 반대 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다.
- ② 추진 위원회는 국립 공원 지하의 공사 구간 변경을 수용하는 대신 반대 위원회에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공사 구간 유지를 요구하였고 이 내용은 ‘합의 사항 2’에 반영되어 있다.
- ④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에서 200km/h로 고속 열차의 속력을 낮춰 운행한다는 ‘합의 사항 3’은 일반 열차의 평균 속도로 낮춰 운행해 달라는 반대 위원회의 요구를 추진 위원회가 조정하여 합의한 결과이다.
- ⑤ ‘합의 사항 4’는 추진 위원회가 주민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13 (가)와 (나)는 모두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쳐 상대를 설득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가)는 여러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이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의 두 위원회는 □□ 학회와 ○○ 학회의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법 변경에 대한 의견을 펼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복합 양식 자료는 (가)와 (나)에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④ (가)는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하나의 대안만 제시되었고, (나)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러 대안을 두고 비교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가)와 (나)에서 모두 말하는 이의 권위를 내세우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나)에서 추진 위원회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출처인 □□ 학회의 권위를 언급하였다.

14 (나)에서 반대 위원회가 공사 공법의 변경을 제안한 이유는 학교와 주거지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 학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추진 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해당 공사 구간에 진동에 예민한 구조물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반대 위원회는 학교와 주거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공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 ② 반대 위원회는 □□ 학회에서는 진동 흡수력이 좋은 토사층을 골라 진동을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공사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허용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 ④ 반대 위원회는 진동에 관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 공법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 ⑤ 반대 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한 ○○ 학회에서는 발파 공법이 진동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었다.

15 ㉠에서는 공사 공법의 변경 요구에 대해 공사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16 ㉠은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개를 입양한 후 쉽게 파양하거나 유기하는 문제를 가리킨다. ㉡는 발파 공법을 유지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문제 상황으로 발파 진동에 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은 글쓴이가 문제 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 ㉡는 말하는 이가 우려하고 있는 미래의 문제 상황이다.

오답 풀이

- ①, ② ㉠은 글쓴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이고 ㉡는 말하는 이가 피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문제 상황이다.
- ④, ⑤ ㉠은 글쓴이가 독자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문제 상황이고 ㉡는 협상 과정에서 반대 위원회가 추진 위원회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문제 상황이다.

3 국어의 어제와 오늘

01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

내용 확인하기

118~120쪽

1 ③ 2 ② 3 ③ 4 ② 5 ③ 6 ③ 7 ③ 8 ⑤

- 1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받침을 뒷말의 초성으로 표기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의 높낮이(성조)를 표현하기 위하여 방점을 사용하였다.
 ② ‘어·린’, ‘·놈’, ‘·어엿·비’ 등의 어휘가 오늘날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ㅇ, ㅎ, ㅁ, ㄴ’과 같이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음운을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⑤ ‘ㅃ’과 같이 글자의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2 ‘宗宗’은 본래 ‘중’으로 소리 나므로, 동국정운식 표기를 위하여 음가가 없는 받침을 넣은 글자가 아니다.

- 3 「세종어제훈민정음」에서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 깃들어 있는 창조 정신, 자주 정신, 애민 정신, 실용 정신을 엿볼 수 있다.

- 4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 ‘ㅣ’, Ø(영형태)로 실현되었다. 주격 조사 ‘가’가 등장한 것은 근대 국어에 이르러서이다.

- 5 ‘불휘 기픈 남근’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이라는 뜻으로 기반이 튼튼한 국가인 조선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해동 육룡’은 세종의 선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을 의미한다.
 ② ‘고성’은 옛날의 성인(聖人)을 의미하는 말로, 중국 역대의 제왕을 일컫는다.
 ④ ‘부름’과 ‘구름’은 조선을 위협하는 시련을 의미한다.
 ⑤ ‘여름’과 ‘바람’은 조선의 영원한 번영과 번창을 의미한다.

- 6 중세 국어에서 초성, 중성, 종성을 반드시 갖춰 표기해야 하는 것은 동국정운식 한자어 표기에만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글자 왼쪽의 점은 방점으로 음의 높낮이를 나타낸다.
 ② 중세 국어 자료를 보면 세로쓰기를 하였으며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④ 중세 국어 자료는 오른쪽 줄에서 왼쪽 줄의 방향으로 읽어 나가도록 쓰였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 7 ㉠은 중세 국어에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이를 현대 국어의 ‘과’로 바꿀 수 있다.

- 8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 국어로 오면서 나이가 적다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의미의 전이’에 해당한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122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② 05 ②

- 01 「세종어제훈민정음」의 내용을 토대로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가 중국의 말과 우리말이 달라 우리나라 말에 맞는 글자를 만듦으로써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 대신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쉽게 표현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백성들이 누구나 벼슬이나 관직에 오르게 하려는 의도는 확인할 수 없다.

- 02 ‘ㅁ·출:내’는 각각 평성, 거성, 상성에 해당한다. 평성은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이다.

오답 풀이

- ① ‘나·랏’은 각각 평성, 거성에 해당한다.

- ② ‘말ㅅㅅ·미’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낮은 소리, 높은 소리’의 순서로 읽는다.
- ③ ‘中동國·꺅’은 각각 평성, 거성에 해당한다.
- ④ ‘·흙·배이·셔·도’는 각각 거성, 거성, 평성, 거성, 거성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높은 소리로, ‘이’는 낮은 소리로 읽어야 한다.

03 병서는 초성이나 종성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표기 방법을 말한다. ‘비’는 병서가 아닌 자음을 세로로 이어 쓴 표기이다.

오답 풀이

- ①, ② ‘ㅅ’, ‘ㅈ’에 각자 병서가 나타나 있다.
- ③, ④ ‘흙’, ‘ㅈ’에 합용 병서가 나타나 있다.

04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조선 왕조의 건립이 하늘의 뜻임을 확인하면서 선조들의 영웅성을 부각시키고, 후대 왕에게 권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었다.

05 ‘ㅂ롬’은 공기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현대 국어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오답 풀이

- ① ‘ㅂ롬’에 사용된 ‘·’는 현대 국어에서 사라졌다.
- ③ ‘ㅂ롬+애’에 사용된 부사격 조사 ‘애’가 현대 국어에서는 ‘에’로 바뀌었다.
- ④ 중세 국어에서는 ‘ㅂ롬+애 → ㅂ롬매’로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를 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바람에’로 끊어 적기를 한다.
- ⑤ 중세 국어에는 ‘ㅂ롬’에 붙은 조사가 ‘에’가 아닌 ‘애’인 것으로 보아 모음 조화가 규칙적으로 적용되었다.

소단원 평가

123~126쪽

01 ② **02** ④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03** ④ **04** ④ **05** ③ **06** ① **07** 전절과 후절이 대구를 이루어 문학적 형식미를 지닌다. **08** ⑤ **09** ④ **10** ② **11** ② **12** ② **13** ④ **14** ③ **15** ④ **16** ③ **17** ⑤ **18** ④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말 속에 담긴 선인들의 생활과 사 고방식을 이해함으로써 고전 문학 작품이나 문헌 자료를 더욱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다. **19** 신어 **20** ③

01 각자 병서는 서로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표기법이다. 중세 국어의 ‘ㄱ, ㄷ, ㅁ, ㅂ, ㅅ, ㅈ, ㅊ’이 이에 해당하며, 현대 국어에서 ‘ㅈ’만 사라졌다. 따라서 각자 병서는 현대 국어에도 쓰이는 표기법이다.

02 중세 국어의 ‘ㅈ·디’는 현대 국어에서는 구개음화를 적용하여 ‘ㅈ지’로 표기한다.

오답 풀이

- ① ‘니르·고·저’를 통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스·물’을 통해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비음화는 표기의 규칙이 아닌 발음의 규칙이므로 (가)를 통해 알 수 없다.
- ⑤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보다 모음 조화가 규칙적으로 적용되었다.

03 내(나+ㅣ)는 앞말이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므로 주격 조사 ‘ㅣ’가 쓰였다.

04 ‘달·아’는 현대 국어와 같이 ‘다르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의미가 변한 어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어·린’은 ‘어리석은’에서 ‘나이가 적은’으로 의미가 이동하였다.
- ②, ③ ‘어·옛·비’는 ‘불쌍히’에서 ‘어여쁘게, 예쁘게’로 의미가 이동하였다.
- ⑤ ‘·노·미’는 ‘(보통) 사람’으로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 ‘놈’은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05 ‘中동國·꺅·에’에서 조사 ‘에’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의 ‘과/와’와 같은 의미이다. ‘·스·물·여·흙·字·중·를’에서 조사 ‘를’은 목적격 조사로 현대 국어의 ‘을/를’과 같은 의미이다.

- 06 ‘同符(동부)·히시·니’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시-’와 ‘서로 꼭 들어맞으시니’에서 사용된 선어말 어미 ‘-시-’는 모두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 07 대구는 비슷한 어구를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나)는 전절과 후절의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되는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문학성을 지녔다.
- 08 ‘: 내·히’는 ‘내ㅎ’에 ‘이’가 결합한 것으로 ‘ㅎ 종성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여 ‘ㅎ’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이다. ‘ㅎ 종성 체언’은 ‘ㄱ, ㄷ, ㅂ’ 앞에서는 그것과 결합하여 ‘ㅋ, ㅌ, ㅍ’을 만들기도 한다.
- 09 ‘남·근’에 사용된 ‘은’과 ‘·므·른’에 사용된 ‘은’은 현대 국어의 ‘은/는’에 해당하는 보조사이다. 앞선 말에서 사용된 모음이 양성 모음일 경우 ‘은’, 음성 모음일 경우 ‘은’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과 ㉡은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던 중세 국어의 모습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구개음화와 두음 법칙이 중세 국어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 ㉡을 통해서도 이를 추론하기 어렵다.
- ③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한자음을 표기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현대 국어에는 없는 모음 ‘·’가 쓰였으나, 사라진 자음은 ㉠, ㉡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10 ‘:도·코’는 반모음 ‘ㅣ’ 앞에 ‘ㄷ’이 온 형태로, 현대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종고’로 바뀌었다.
- 11 ‘니르·고·저’의 ‘니’는 모음 ‘ㅣ’ 앞에 ‘ㄴ’이 온 형태로, 현대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이르고자(말하고자)’로 표기한다.
- 12 ‘어여쁘다’는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이동한 어휘이다. ‘어리다’는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어휘의 의미가 이동한 단어에 해당한다.

- 13 훈민정음 창제 당시 만든 28자는 자음 ‘ㄱ, ㅋ, ㅇ’, ‘ㄷ, ㅌ, ㄴ’, ‘ㅂ, ㅍ, ㅁ’, ‘ㅅ, ㅆ, ㅈ’, ‘ㅎ, ㅎ, ㅇ’, ‘ㄹ’, ‘ㅅ’의 17개와 모음 ‘·,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의 11개이다. ‘ㅁ’은 ‘ㅂ’과 ‘ㅇ’을 세로로 이어 쓴 것으로 ㉡의 28자에 해당하는 글자는 아니다.
- 14 ‘:사람:마·다’는 상성, 평성, 상성, 거성의 순서이므로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낮은 소리(—),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높은 소리(ˊ)의 순서로 소리 낸다.
- 15 ‘꽃’과 ‘여름’은 현대어로 ‘꽃’과 ‘열매’를 의미한다. 꽃과 열매가 많다는 것은 대대손손 번창할 것임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 오답 풀이**
- ① ‘불·취기·픈나모’, ‘시·미기·픈·물’의 비유적 의미이다.
- ② (다)를 통해 전달하려는 생각이다.
- ③ (다)와 관련이 없다.
- ⑤ ‘부름’과 ‘구물’의 비유적 의미이다.
- 16 ‘구두코’는 ‘구두+코’로 구두의 앞쪽 끝부분을 의미한다. ‘코’는 격음이나 ‘구두’의 영향으로 소리가 변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④, ⑤는 모두 뒷말의 첫소리가 격음화되어 표기되는데 이는 ‘ㅎ 종성 체언’의 영향 때문이다.
- 17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ㅎ’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격음화하지 않고 그대로 ‘암별’, ‘암개미’, ‘수사자’, ‘수고양이’로 표기한다. 그러나 ‘병아리’는 ‘암평아리’, ‘수평아리’로 표기한다.
- 18 국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생성, 발전, 소멸하므로, 국어를 본연의 모습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 19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 유입되는 대상이나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거나 기존의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은 ‘신어’이다.

- 20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새로운 문물인 ‘기차’를 가리키는 신어 후보로 등장하였다 사라진 단어들이다.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은 전문어이다.

1등급 평가

127쪽

01 ㉓ 02 ㉕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3 [1단계] 이, ㅣ, ㅑ (영형태)

[2단계] 자음, ㅌ, ㅍ

[3단계]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 ‘ㅣ’, ‘ㅑ’가 쓰였는데, ‘이’는 ㉓와 같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고, ‘ㅣ’는 ㉕와 같이 앞말이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 ‘ㅑ’는 ㉖와 같이 앞말이 ‘ㅣ’나 반모음 ‘ㅚ’로 끝나는 체언 뒤에 생략 형태로 쓰였다.

- 01 (가)에서는 현대 국어에 와서 의미가 축소(좁아)되거나 전이(어린, 어엿비)된 중세 국어의 어휘를 확인할 수 있다. 의미가 확장된 어휘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는 모두 중세 국어 자료이다.
 ② (가)는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밝힌 글로 실용문적 성격이 강한 반면, (나)와 (다)는 약장으로 문학적 성격이 강하다.
 ④ (나)에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현대 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는 다른 형태이다.
 ⑤ (다)의 ‘불·휘(불휘+ㅇ)’에서 영형태(ㅇ)로 실현된 주격 조사를, ‘시·미(심+이)’에서 ‘이’로 실현된 주격 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 02 ‘ㄱ ㅁ ㅂ ㄹ’은 가뭄을 뜻하는 ‘ㄱ물’에 부사격 조사 ‘애’를 결합하여 이어 쓴 형태이다.

03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키워드 발견

㉓는 ‘말씀’에 ‘이’가 붙은 형태로 이어 적기하여 표기되었다. ㉕는 ‘바’에 ‘ㅣ’가 붙어 ‘배’로 표기되었고, ㉖는 ‘불휘’에 주격 조사가 생략 형태로 쓰였다.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㉓의 ‘말씀’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고, ㉕의 ‘바’는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다. ㉖의 ‘불휘’는 반모음 ‘ㅚ’로 끝나는 체언이다.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㉓~㉖에 들어가는 주격 조사의 형태와 실현 조건을 각각 정확히 밝혀 서술한 경우	5
㉓~㉖에 들어가는 주격 조사의 형태와 실현 조건을 일부만 정확히 밝혀 서술한 경우	3
㉓~㉖에 들어가는 주격 조사의 형태와 실현 조건을 모두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

◆감점 피하기 tip

㉓~㉖ 각각의 주격 조사와 그 앞말의 형태를 정확히 분석해야 <조건>에 맞게 빠짐 없이 서술할 수 있다. ㉓의 경우 이어 적기로 표기되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이’와 ‘ㅣ’를 명확히 밝혀 감점을 피할 수 있다.

02 한글 맞춤법과 오늘날의 국어생활

내용 확인하기

130~133쪽

1 ④ 2 ㉠ 나아요? ㉡ 무난해요 3 ① 4 ⑤ 5 ㄴ, ㄷ, ㄹ 6 ③
7 ① 8 ① 9 ⑤

1 **발견하기**에서는 ‘나아요?’, ‘문안해요’와 같이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⑦과 ㉠은 어법에 맞게 고쳐 써야 하는 단어이다.

3 ‘부씩’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로, 소리 나는 대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② 한껏, ③ 뱀새, ④ 해씩해, ⑤ 국수가 각각 맞는 표기이다.

4 ‘거꾸로’는 두 모음 사이에서 ‘ㄱ’이 된소리로 나는 것으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몹시[몹:씨]는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③, ④ 색시[색:씨], 딱지[딱:씨], 깎두기[깎:두기]는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5 <보기>의 ㄱ은 모음 발음의 표기에 대한 설명이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ㄴ, ㄷ, ㄹ’의 표기에 대한 규정으로 <보기>의 ㄴ, ㄷ, ㄹ이 그 규정이다.

6 앞말에 받침이 있는 경우 사이시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사이시옷은 합성어를 만들 때에 표기한다.

② 결합하는 두 형태소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말일 때에 사이시옷을 표기하며 두 형태소 모두 한자어일 때에는 정해진 몇 개의 단어에만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④ 두 형태소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말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⑤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때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7 ‘한여름’은 파생어로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여’이므로 ‘ㄴ’ 음이 첨가된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⑤ 순우리말끼리 결합한 파생어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8 ‘너밖에’에서 ‘밖에’는 ‘그것 말고’, ‘그것 이외에’의 의미를 지닌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9 ‘떠난지’에서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떠난 지’라고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갓’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②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③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④ ‘이’는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135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④

01 ‘꾸준히’는 ‘-하다’가 붙는 어근 ‘꾸준’에 ‘-히’가 붙은 경우로 원래의 형태를 밝혀 표기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만, 어근에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정(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따라 ‘지그시’, ‘슬며시’, ‘반드시’, ‘갑자기’로 표기한다.

02 접시[접씨]는 ‘ㅂ’ 받침 뒤에 연결되는 ‘ㅅ’이 된소리로 나지만 원형대로 ‘접시’라고 표기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한 단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를 표기한 단어는 ㄱ, ㄴ, ㄷ에 해당한다. ㄹ은 소리대로 적지 않았다.
- ② ㄱ은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에 해당한다.
- ③ ㄴ은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에 해당한다.
- ④ ㄷ은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에 해당한다.

03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물’은 ‘열’, ‘울’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백분율’이 적절한 표기이다.

오답 풀이

- ①, ③ 한자어 ‘량’, ‘례’가 단어의 첫머리에 와서 ‘양’, ‘예’로 적는다.
- ② 한자어 ‘량’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았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 ④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물’은 ‘열’, ‘울’로 적으므로 ‘원주율’로 적는다.

04 <보기>는 모두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코’, ‘차’, ‘해’, ‘전세’와 같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각각 [뽕], [짚], [쑤], [짹]과 같이 된소리로 나는 환경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한다.

05 ‘너 뿐만’에서 ‘뽀’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만’도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모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뽀대로’에서 ‘대로’는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② ‘찾는 대로’에서 ‘대로’는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써야 한다.
- ③ ‘들었을 뿐이네’에서 ‘뽀’는 다만 어떠한가나 어떠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써야 한다.
- ⑤ ‘않았다 뿐이지’에서 ‘뽀’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써야 한다.

소단원 평가

136~138쪽

01 ② **02** ③ **03** ④ **04** 더욱이, ㄷ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더욱이,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이므로 원형을 밝혀 ‘더욱이’로 표기해야 한다. **05** ② **06** ③ **07** ②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빈물]로 소리 나기 때문이다. **08** ③ **09** ③ **10** ③ **11** ‘안되다’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안 되다’는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01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은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한글 맞춤법은 표기에 대한 규정이고, 발음은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에서 다룬다.
- ③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조사는 붙여 쓴다.
- ④ 한글 맞춤법에서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원칙은 표음 문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린 원칙이다.
- 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기도 하지만 원형을 밝혀 쓰기도 한다.

02 ㉠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원칙이므로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경우를 찾아야 한다. ‘하늘[하늘]’, ‘색깔[색깔]’, ‘느리다[느리다]’는 소리대로 쓴 것이다. 반면 ‘맑다[막따]’, ‘얼음[어름]’, ‘살살이[살싸찌]’는 어법에 맞게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03 ‘만큼’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고, ‘거야’는 ‘것이야’의 줄임말이고 ‘것’이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우리만큼V착한V학생은V없을V거야.’가 옳바르다.

오답 풀이

- ① ‘것’이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그는V일하는V것만V좋아한다.’로 띄어 써야 한다.
- ② ‘밖에’가 조사가 아닌 ‘명사+조사’의 형태로 쓰였으므로 앞말에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V집V밖에V서V있었다.’로 써야 한다.
- ③ ‘대로’가 조사가 아닌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그V일을V마치는V대로V퇴근하세요.’로 띄어 써야 한다.
- ⑤ ‘같이’가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나도V너같이V키가V크면V좋겠어.’로 띄어 써야 한다.

04 ‘더욱’이라는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로 이 경우 부사의 원형을 밝혀 ‘더욱이’로 써야 한다. ‘더욱이’와 같이 ㄷ에 해당하는 단어는 ‘곰곰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등이 있다. 그리고 ㄱ에 해당하는 단어로는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듯이’ 등이 있고, ㄴ에 해당하는 단어로는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등이 있다.

05 ‘듬뿍’은 ‘듬뿍’으로 ‘짹짹’은 ‘짹짹’으로 고쳐 써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③, ④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는 ‘열, 울’, ‘ㄴ’이 아닌 받침 뒤에는 ‘열, 물’을 써야 하므로 ‘운울’, ‘능룰’, ‘행렬’로 고쳐 써야 한다.
⑤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하므로 ‘갑자기’로 고쳐 써야 한다.

06 ‘씩둑[씩둑]’은 ‘ㄷ’이 앞에 오는 받침 ‘ㄱ’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07 ‘빗물’은 [빈물]로 소리 난다. 순우리말인 ‘비’와 ‘물’이 결합한 합성어로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08 한글 맞춤법 제5장 제42항에 따르면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 ‘트는대로’에서 ‘대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 ‘트는V대로’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제41항에 따라 ‘마음대로’의 ‘대로’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② 제41항에 따라 ‘셋뿐이야’의 ‘뿐’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④ 제42항에 따라 ‘연습했을뿐이야’의 ‘뿐’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⑤ 제43항에 따라 ‘두자루’의 ‘자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09 ‘땀’+‘일’을 ‘머칠’로 적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② ‘무덤[무덤]’, ‘사랑니[사랑니]’는 모두 소리대로 적는 것이다.

- ④, ⑤ ‘줄구나[조쿠나]’, ‘급히[그피]’는 모두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다.

10 ㉠ ‘깍두기’는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깍뚜기]로 소리 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적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 ‘담갔다’에서 ‘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간]으로 소리 나고, ‘다’는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따]로 소리 난다.
㉢ ‘걸히고’는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어 [거티고]로 되었다가 다시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거치고]로 소리 난다.

11 ‘안되다’를 붙여 쓰면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안 되다’는 ‘되다’의 부정형으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1등급 평가

139쪽

01 ⑤ 02 ③ 03 ②

1등급을 결정짓는 **사이시옷 문제**

04 [1단계] 합성어

[2단계] 파생어

[3단계] 제30항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 또는 두 음절로 된 일부 한자어에만 받치어 적는데 ‘해님’은 파생어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은 ‘해님’이 맞는 표현이다.

01 ‘줄이다’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줄여’, ‘줄이고’ 등으로 활용한다. 나머지는 올바르게 쓴 표기를 오히려 잘못 고친 예이다.

오답 풀이

- ① 동사를 명사형으로 만들 때는 ‘-ㅁ’을 붙일 수 있으므로 ‘만들 + -ㅁ → 만듦’으로 표기해야 한다.
② ‘달이다’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달인’, ‘달이고’ 등으로 활용한다.

- ③ '성장'은 'ㅇ' 받침으로 끝나므로 뒤에는 '룰'이 붙어 '성장룰'이 되어야 한다. '울'은 앞말이 모음이나 'ㄴ' 받침으로 끝날 때 쓴다.
 ④ '덮밥'은 '덮다'에 '밥'이 결합한 것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덮밥'으로 표기해야 한다.

02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써야하므로 '이만V천오백'으로 띄어 써야 한다.

03 '살살-'은 '살살하다', '살살거리다'가 되는 어근이므로 '-이'를 붙여 명사를 만들 때 그 원형을 밝혀 '살살이'로 표기해야 한다. ㉞에 해당하는 단어로는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깍두기, 팽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등이 있다.

04 1등급을 결정짓는 **사실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사이시옷이 붙는 조건 중 1, 2는 모두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 대한 규정이다.

◆ 2단계: <질문> 확인 및 적용

'해님'의 '-님'은 접사이므로 파생어이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맞는 표현을 쓰고,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한 경우	5
맞는 표현을 썼으나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	3
틀린 표현을 선택하였으나, 파생어임을 밝힌 경우	1

대단원 평가

140~145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③ 05 ③ 06 ④ 07 ④ 08 ⑤
 09 ① 10 ④ 11 ③ 12 ② 13 ④ 14 ③ 15 ③ 16 ①
 17 ③ 18 ④ 19 ② 20 ⑤ 21 ③ 2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므로 '사든지 말든지'로 써야 한다.
 23 ④

01 (나)와 (다)에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된 글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다)에서는 모두 띄어 쓰기를 하지 않았다.
 ③ (가)~(다)에서는 모두 방점을 사용하여 음의 높낮이를 표현하였다.
 ④ (나)에서는 'ㄴ'·'루'·'샤', '·이시·니', '·후시·니'와 같이 주체를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⑤ (나)의 '海東(해동)六龍(육룡)', (다)의 '불·휘기·폰남·고', '시·미기·폰·르·른' 등의 표현은 모두 비유적 의미를 사용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02 '·노·미'는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낮춰 칭하는 의미로 범위가 축소되었다. '어·린'은 '어리석은'의 의미에서 '나이가 적은'으로 의미가 이동하였고, '어엿·비'도 '불쌍히'라는 의미에서 '예쁘게'라는 의미로 의미가 이동하였다.

03 (다)에만 전절과 후절이 유사한 대구의 형식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나)에서는 중국 고사를 활용하여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나타내고 있다.
 ③ (다)에서는 꽃, 열매, 바다 등의 표현을 활용하여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송축하였다.
 ⑤ (나)와 (다)는 은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문학성이 나타나는 글이다.

04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될 환경에서는 'ㅣ' 또는 'Ø(영형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㉞은 현대 국어에서도 주격 조사 '이'를 사용하는 환경이므로 ㉞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다.

05 ㉞에 사용된 조사 '이'는 주격 조사에 해당한다. ㉞에 사용된 조사 '이'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에서는 '과/와'에 해당한다.

06 'ㄴ'·'르'·'샤'에서는 '-샤-'를 사용하여 주체인 '해동육룡'을 높이는 주체 높임이 나타난다.

07 <보기>에서는 'ㅎ' 중성 체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ㅎ' 중성 체언'의 흔적이 남아 있는 단어는 'ㅎ'이 뒤에 오는 자

음과 결합하여 거센소리가 된다. 그러나 ④는 ‘ㅎ 중성 체언’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단어이므로 ‘수고양이’로 표기한다.

08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이 등장하면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 신어 후보들이 등장한다. 이 후보들 중에서 언어 사용자의 공인을 많이 얻은 신어만 공동의 어휘 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 탈락한 신어들은 일정 기간 사용되다 사라진다.

09 <보기>의 ㄱ에서는 외국어와 외래어 남용의 문제점을 보여 준다. 우리말을 외면하고 외국어나 외래어를 남용하다 보면,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와 언어 소외 계층을 만들 수 있다. ㄴ에서는 과도하게 줄임말을 남용하는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인 국어의 모습(맞춤법, 띄어쓰기, 올바른 문장 표현) 등을 해칠 수 있고, 그 표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우리말을 살려 쓰고,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는 경우에도 우리말을 병기해 주는 것이 좋다.
- ③ ㄴ에서는 줄임말이나 초성으로만 표기한 말이 쓰였는데 이와 같은 언어 현상은 일반적인 국어의 모습을 해칠 수 있다.
- ④ ㄴ과 같이 지나치게 줄여 표현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상대의 감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ㄱ, ㄴ에 쓰인 언어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 세대 간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10 <보기>는 원순 모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표현이 나타나는데 현대 국어에서 ‘스물’로 표기되는 말이 ‘·스·믈’로 표기된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1 (다)에서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는 단어의 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발음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12 ‘초점(焦點)’은 한자어로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가 아니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것은 ‘곶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횃수’뿐이다.

오답 풀이

- ① ‘헛수[해쑤/헨쑤]’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양칫물[양친물]’은 순우리말끼리 결합된 합성어로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전셋집[전세쩍/전셀쩍]’은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아랫마을[아랜마을]’은 순우리말끼리 결합된 합성어로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13 ㉔에서 ‘이곳’을 붙여 쓴 이유는 ‘이곳’이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이다.

14 ‘깨끗이’는 ‘깨끗하다’의 어근 ‘깨끗’에 ‘이’가 붙은 것으로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는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פות, 깨끗이’ 등이 있고,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는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뎅이, 일찍이, 해죽이’ 등이 있다.

15 ‘소리’는 순우리말이므로 ㉔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열’의 ‘열’은 본래의 음이 ‘렬’이 아닌 ‘열’이므로 ㉔에 해당되지 않는다.

16 ‘눈요기’는 ‘ㄴ 첨가’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로 [눈뇨기]로 발음해야 한다. [눈뇨기]는 연음만 이루어지고 ‘ㄴ’ 음이 첨가되지 않은 잘못된 발음이다.

17 ‘배’와 ‘병(病)’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결합하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㉔에 해당하여 ‘뱃병’으로 표기한다.

오답 풀이

- ① ‘깨’와 ‘앞’은 모두 순우리말로 결합하면 ‘ㄴ ㄴ’ 소리가 덧난다. 따라서 ㉔에 해당하여 ‘꺄앞’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② ‘개’와 ‘수’는 모두 한자어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고, ‘개수’로 표기해야 한다.
- ④ ‘아래’와 ‘마을’은 모두 순우리말로 결합하면 ‘ㄴ’ 소리가 덧난다. 따라서 ㉔에 해당하여 ‘아랫마을’로 표기해야 한다.
- ⑤ ‘되’와 ‘마루’는 한자어와 순우리말에 해당하고, 결합하면 ‘ㄴ’ 소리가 덧난다. 따라서 ㉔에 해당하여 ‘뒷마루’로 표기해야 한다.

18 ‘찾잔’의 ‘차’는 순우리말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경우 중 ㉠에 해당한다.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 사이시옷을 받쳐 쓰는 것은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횃수’이다.

19 ‘산뜻하다’는 ㉡에 해당하여 된소리로 소리 나고 표기도 된소리로 적는다.

오답 풀이

- ① ‘국수’는 ㉠에 해당하여 된소리로 나지만 된소리로 적지 않아야 한다.
- ③ ‘몹시’는 ㉠에 해당하므로 된소리로 나지만 된소리로 적지 않아야 한다.
- ④ ‘신다’는 ㉡에 해당하여 된소리로 나므로 ‘신다’와 같이 적어야 한다.
- ⑤ ‘엉뚱하다’는 ㉡에 해당하므로 ‘엉뚱하다’와 같이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20 ‘돼’는 ‘되다’의 어간에 어미 ‘-아/어’가 붙어 형성된 표현으로 문장의 종결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몇일 → 며칠
- ② 담궜다 → 담갔다
- ③ 거쳤다 → 견혔다
- ④ 오투기 → 오횃이

21 시냇물은 순우리말인 ‘ 시내’와 ‘물’이 결합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 ‘ㅛ’로 끝난다. 뒷말의 첫소리 ‘ㅍ’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시:넌물]로 발음되므로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장미과’는 한자어끼리 결합된 단어이다.
- ② ‘나뭇잎’은 [나문닙]으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는 단어이다.
- ④ ‘막넛동생’은 [망내동생/망넛동생]으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단어이다.
- ⑤ ‘나뭇가지’는 [나무까지/나뭇가지]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단어이다.

22 <보기>의 한글 맞춤법 제56항에서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든지 말든지’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 ‘-더라, -던’으로 적는 예: 지난겨울은 몹시 춥더라. / 깊던 물이 알아졌다. / 그렇게 좋던가? / 그 사람 말 잘하던데! /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 ‘(-)든지’로 적는 예: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23 ‘우리 가게 떡볶이는 모두 햄쌀로만 만들.’에서는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미시오 → 미시오
- ② 다린 → 달인
- ③ 김치찌게 → 김치찌개
- ⑤ 생각하는대로 → 생각하는ㄴ대로

4 세상을 보는 눈

01 비판적으로 매체 읽기

기후 위기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강찬수, 제정임

내용 확인하기

150~153쪽

1 ③ 2 ③ 3 골치 4 ④ 5 ① 6 ⑤ 7 ② 8 ① 9 ① 10 ④
11 ④

- 1 (가)에 따르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후 변화’와 같이 중립적인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후 변화’라는 말 대신 ‘기후 위기’, ‘기후 비상’과 같은 말을 쓰는 이유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공포심을 잠재우려면 오히려 중립적인 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영국 언론 매체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중립적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④ ‘기후 위기’나 ‘기후 비상’이라는 말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 용어인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⑤ 언론 매체의 태도를 잘 보여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 2 그래프를 보면 ‘리우 회의’, ‘교토 의정서 채택’, ‘세계 지속가능 발전 정상 회의 개최’, ‘그린 뉴딜, 탄소중립 등이 화두가 됨.’ 등 국제적인 사안이 있을 때 기후 위기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를 국제적 문제로만 인식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3 기사문의 표제는 ‘신재생 에너지, 폐기물 처리 골치’이다. ‘골치’는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이 표현을 통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골치’라는 단어를 통해 이 기사문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4 기사문에서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발생량이 2018년에 17만 6천 톤에서 2020년 279만 4천 톤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2030년에 발생할 폐기물의 양을 2만 935톤으로 전망한다고 하였으므로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발생량이 매년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5 이 기사문에서 기자는 ○○ 기관, 한국 □□ 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였는데 인용한 자료와 기사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 6 (사)~(차)에서 글쓴이는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사)~(차)에서 언론 매체의 문제점을 다루었으나 이를 언론 매체 스스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②, ③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언론 매체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을 뿐, 약자나 국가 발전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④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기보다 기후 위기와 관련한 정책과 공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7 ㉠의 자료를 보면 기후 관련 신문 지면 보도의 주제로 ‘기업 홍보’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언론 매체가 기업을 감시하기보다 오히려 돕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8 기업의 그린 위시를 감시하는 것은 ‘경제’ 분야에서 언론 매체의 역할에 해당한다.

- 9 (카)에서 ‘기후 위기 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라고 하면서 언론 매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 매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기후 위기 보도를 해야 한다.

- 10 (하)에서 언론 매체는 기후 위기 속에서 대안과 희망을 주는 보도를 해야 하며 대중에게 공포감이나 무력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언론 매체는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부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 11 언론 매체가 올바르게 기후 위기 보도를 하여 기업들을 감시하면 환경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광고 따위를 통하여 스스로를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포장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기후 위기 보도는 기업들이 그린 위시 등의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게 한다.

01 ① 02 ③ 03 ② 04 ④

01 「기후 위기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는 국내 언론 매체의 기후 위기 보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언론 매체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 언론 매체의 보도 경향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국내 언론 매체에 대한 문제 제기만 있을 뿐, 정부의 노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전문가들의 의견이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긍정적인 평가도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국내 언론 매체가 보여 준 성과를 분석하고 있지 않다.

02 <보기>에 따르면 국내 언론 매체는 정치인들에게 기후 위기와 관련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권도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03 기후 위기에 대하여 언론 매체는 대안과 희망을 주는 보도를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글쓴이는 국내 언론의 기후 위기 보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 위기 전담 팀의 구성과 관련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언론 매체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01 ③ **02** ① **03** ④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기후 위기 관련 기사는 여러 사람이 검토하여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데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여 기본적인 데이터 오류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04** ⑤ **05** ③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세 번째 문단에서 언론 매체가 기업을 감시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한다. **06** ⑤ **07** (나) 광고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심표'를 통해 어떻게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1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때에는 신뢰성, 공정성, 타당성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매체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더라도 자료가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료를 무조건 믿는 것은 문제가 있다.

02 이 글은 '국내 언론의 기후 위기 보도 현황'을 제시하며 기후 위기 보도와 관련한 국내 언론 매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인 통시적 관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다양한 사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전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거나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서로 다른 관점이 드러나지 않고, 이를 절충하고 있지도 않다.

03 이 글의 글쓴이는 국내 언론 매체의 문제점으로 전문 취재 팀이 부족하고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니 기본적인 데이터 오류도 확인하지 않은 자료가 기사화된다는 것이다. <보기>에서는 2030년 이후 매립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며 전문 기관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그 근거 자료와 기사 내용이 모순된다. 따라서 글쓴이는 <보기>에 대해 전문 기관의 자료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04 취약 계층의 개인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취약 계층이 입은 피해는 사실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

05 <보기>의 자료를 보면 '기후' 관련 신문 지면 보도 건수 중 '기업 홍보'의 보도 건수가 21건으로 가장 많다. 이를 통해

국내 언론 매체가 기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기사를 쓰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06 <보기>는 신문 기사가 편집자의 가치 판단을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독자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보도에 보도하는 사람의 의도나 관점이 담겨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명확히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07 (나)의 광고는 기업이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회용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제로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만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로 포장하려는 것을 그린 위시라고 한다.

1등급 평가

159쪽

01 ③

1등급을 결정짓는 **뉴스형 문제**

02 [1단계] 지속적, 공중 의제

[2단계] 경각심, 참여

[3단계] 사회 구성원들이 기후 위기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 매체는 기후 위기 문제를 공중 의제로 설정하여야 한다.

01 공정성은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를 살피는 것과 관련된다. 언론 매체가 제 역할을 하는 예로 동양권 나라를 언급하는 것은 공정성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검증 시스템의 미흡으로 기본적인 데이터 오류도 확인하지 않은 자료가 기사화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면 내용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 ② (나)에서는 언론 매체의 정치권 감시와 관련된 동영상상을 제시하면 표현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다)에서는 전담 취재 팀이 부족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보여 주는 표를 활용하면 표현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다.

⑤ (라)에서 언론의 비판, 감시의 역할과 관련한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면 내용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02 1등급을 결정짓는 **뉴스형 문제**

◆1단계: 키워드 발견

<보기>는 언론사가 '공중 의제'를 설정할 수 있음을, (다)는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에 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도할 책임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다)와 같이 언론이 책임에 충실할 때 사회 구성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에 참여할 것이다.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기후 위기를 '공중 의제'로 설정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임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공중 의제', '참여'의 키워드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
'공중 의제', '참여'의 키워드를 제시하였으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1

◆감점 피하기 tip

신문과 방송 같은 매체에서 뉴스 결정권자가 어떤 뉴스를 보도할지 취사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공중 의제가 설정되므로 언론 매체는 기후 위기를 '공중 의제'로 설정할 책임이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공중 의제'와 '참여'를 연결 지어야 감점을 피할 수 있다.

02 주제 통합적 읽기

친구에 관한 세 가지 글

내용 확인하기

161~165쪽

1 ㉔ 2 ㉔ 3 ㉔ 4 '나'의 집은 방 두 칸이 전부여서 친구들이 올 때
마다 불편하고 미안했던 일 5 ㉔ 6 ㉔ 7 ㉔ 8 ㉔ 9 ㉔ 10 ㉔
11 ㉔ 12 ㉔ 13 ㉔ 14 ㉔ 15 ㉔ 16 ㉔

- 1 '글 1'에는 친구들이 '나'의 집 서재를 지어 주는 구체적인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이 글은 소설로 운율감을 지닌 언어가 활용되지 않는다.
- ④ 인간과 사회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이 글은 글쓰기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이덕무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소설화한 것이다.

- 2 (나)에서 유득공이 '나'에게 한 말을 통해 '나'의 집에 서재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나'는 장정들이 자신의 집에 들이닥치자 당황하지만 유득공이 방 한 칸을 만들어 편안하게 책도 읽고, 자주 찾아와 함께 지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벗들의 그 마음에 고마움을 느껴 눈물이 고였다.

- 4 '나'는 우리 집은 바깥채가 따로 없이 좁은 마루를 사이에 둔 방 두 칸이 전부여서 친구들이 올 때마다 불편하고 미안했다고 표현하면서 지난날의 일을 회상하고 있다.

- 5 '다른 벗들도 모두 넉넉한 형편이 아니니'라고 하였으므로 '나'의 벗들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예상한 것보다 많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6 자연물인 '하늘'이 인상을 쓰지 않고 '바람'이 흠뻑을 쓰다듬는다고 하여 의인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㉔에서 '나'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③ ㉔을 통해 서재의 화려함을 엿볼 수 없다.
- ④ ㉔을 통해 서재의 안정성에 대한 '나'의 걱정을 확인할 수 없다.
- ⑤ ㉔에는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 7 '나'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 서재를 새로 만들어 준 것과 그러한 친구들의 마음을 잘 아는 아내가 밤새워 바느질을 해 술상을 마련해 준 것에서 따뜻함과 고마움을 느꼈다.

- 8 '글 2'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참된 친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서로 다른 관점을 절충하고 있지 않다.
- ③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사회적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그 결과를 추론하고 있지 않다.
- ⑤ 역사적 사건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 9 '니체'는 동정이 아니라 우정을 바탕으로 상대를 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정에는 상대에 관한 존경과 존중이 전제되어 있어 상대의 잠재력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은 동정도 마찬가지이므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② 좌절에 빠진 친구를 일으켜 주는 것은 동정,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우정이라고 하였다.
- ③ 우정을 나누는 사이는 서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돕는 관계라고 하였다.
- 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은 동정이고 스스로 극복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우정이라고 하였다.

- 10 '딱딱한 야전 침대'는 병상용 침대와는 달리 일시적인 휴식을 취하여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전장에 나갈 수 있게 해 준다. 니체는 이와 같이 진정한 친구는 상대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위로와 힘도 주지만 동시에 잠재력을 활발하게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 11 니체에 따르면 참된 친구는 상대를 존중, 존경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존재이다. 상대가 불행할 때 선한 친절을 베푸는 것은 동정에 가까운 행동으로 니체는 동정은 참된 친구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였다.

- 12 소설 「클라라와 태양」에서 인공지능 로봇인 클라라는 한 가정에 입양되어 몸이 아픈 아이인 조시의 친구가 되어 준다.
- 13 「클라라와 태양」에서 인공지능 로봇인 클라라는 조시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에서 클라라라는 인공지능은 가족이나 친구의 역할을 해 주기 위해 개발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14 ㉠에 따르면 호모 사피에스만큼 지능이 뛰어나지 않았던 호모에렉투스 때 이미 인류의 뇌가 급격하게 커졌으므로 고도의 지능 발달이 인류의 뇌를 급격하게 커지게 한 핵심 원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가설의 내용이다.
- 15 인간은 개별적으로는 힘이 약하지만, 무리를 지어 함께 다니면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고 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많은 친구를 확보해야 더 크고 힘이 센 짐승들을 사냥하면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구를 많이 확보해도 나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도망가는 이들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 16 글쓴이는 인간은 언제든지 나의 요구를 들어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친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글쓴이가 자신보다 강하며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친구로 여겼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167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⑤

- 01 ‘글 1’에서 백동수가 ‘나’의 처남이고 ‘나’를 잘 따른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으나 ‘나’를 무서워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다.
- 02 ‘글 2’에서 ‘딱딱한 야전 침대’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상대를 독려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 03 ‘글 3’에서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을 친구로 만들고자 하는 까닭은 언제든지 나의 요구를 들어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친구가 현실에서 점차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인공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까닭은 인간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04 글을 읽기 전에는 ‘제목, 소제목, 사진 등을 훑어보며 내용을 예측하기’, ‘질문 만들기’와 같은 읽기 활동을 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168~171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① 05 문학, 설명 06 ②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벋들과의 진정한 우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07 ④ 08 ④ 09 ④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상대를 믿고 존중하며 상대가 행복감을 느끼고 더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는 존재 10 니체는 참된 친구란 서로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1 ⑤ 12 ⑤ 13 ⑤

- 01 이 글은 이덕무라는 특정 인물을 주인공 ‘나’로 설정하여 ‘나’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소설이다.

오답 풀이

- ①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외양 묘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 대화는 제시되었지만 이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이 고조되지는 않는다.
④ 여러 등장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⑤ 과거에 경험한 사건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회상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02 ㉠은 봄이 되어 짙은 녹색의 이끼가 낀 백담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으로, 백담 아랫동네에서 맞이하는 봄날의 정경을 전달하고 있을 뿐 ‘나’의 어려운 처지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 03 〈보기〉에서 이 글에는 이덕무와 그의 친구들의 우정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득공은 서재를 만들어

주려는 친구들의 마음이 자칫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어 겸연쩍은 표정을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4 (가)의 첫 문단의 ‘하늘도 궂은~만들어 주었다.’에서 의인화된 표현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② (가)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으며 인물의 심리 변화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③ (나)에서 ‘동정’과 ‘우정’을 상반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절충하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 ④ (나)에서는 허구적인 인물이 아닌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 ⑤ (나)에는 서술자의 경험과 깨달음이 드러나지 않는다.

05 (가)와 (나)는 모두 친구에 관한 글이지만 그 종류와 분야가 다르다. (가)는 소설로 문학 분야의 글이고, (나)는 설명하는 글로 철학 분야의 글이다. 같은 화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서로 다른 종류와 분야의 글을 읽으며 풍부한 독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06 ㉠은 ‘나’에게 벗들과의 진정한 우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소이다.

07 니체는 ‘우정’을 서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돕는 관계, 상대에 관한 존경과 존중이 전제되는 관계라고 하였다. 상대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이와 거리가 멀다.

08 니체는 열등의식이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상대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므로 열등의식이 친구를 서로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09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 주기 위해 자신의 성공을 숨기는 모습은 니체가 주장하는 참된 친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10 니체는 타인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정 상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참된 친구라고 보았다.

11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서 읽어야 한다. 모르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미 잘 아는 내용을 정리하며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12 (다)에서 친구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나타나 있다. 서로를 희생하는 존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3 (다)에서 인간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친구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은 (다)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평가

172~173쪽

01 ㉠ **02** ㉢ **03** ㉤

1등급을 결정짓는 **사실·인물·관계**

04 [1단계] 뇌, 친구

[2단계] 친구, 기억

[3단계]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많은 친구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해야 했기 때문에 뇌가 커졌다.

01 작가가 이덕무의 시문학적 능력을 과장했다는 내용은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의 ‘나’는 이덕무로 설정되어 있다.
- ② 이덕무의 자서전을 읽고 상상력을 더해 창작한 소설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글에 등장하는 친구들도 실제 인물이었겠다고 추측할 수 있다.
- ③ 이덕무와 친구들은 모두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고 하였으나, 그런 형편에도 서재를 지을 만큼 책을 아끼고 좋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보기〉에서 이덕무는 가난한 가정 환경에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글은 사실에 기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02 이 글에는 ‘나’의 집이 좁고 불편하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 이에 ‘나’의 벗들은 ‘나’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렇듯 상대의 처지를 배려하면서 도움을 주는 모습을 이 글에서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03 (가)는 니체의 주장을, (나)는 진화학자들의 주장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관점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특정 사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② (가)는 글쓴이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대상의 원리를 분석한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 ③ (나)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거나 이를 통해 기존의 통념에 대해 반박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나)에서 상반된 주장을 절충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나)에서 인간의 뇌가 커진 까닭은 친구 때문이라고 하였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나)에 따르면 과거 인류가 맹수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많은 친구가 필요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거래를 기억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양이 많아지면서 인류의 뇌가 커졌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조건>에 맞게 서술하되 핵심 키워드인 ‘친구’, ‘기억’, ‘관계 유지’를 모두 잘 쓴 경우	5
핵심 키워드인 ‘친구’, ‘기억’, ‘관계 유지’를 썼으나 <조건>에 맞지 않게 쓴 경우	3
핵심 키워드인 ‘친구’, ‘기억’, ‘관계 유지’를 제시하였으나 <조건>에 맞지 않게 쓴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나)에 나타난 논리의 흐름을 따라 뇌가 커지게 된 핵심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특히 친구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거래를 기억해야 했다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대단원 평가

174~179쪽

01 ① 02 ① 03 ① 04 ③ 05 ⑤ 06 ③ 07 ⑤ 08 ②
09 ③ 10 ③ 11 존중과 존경이 전제되어 있고 동락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 12 ④ 13 ⑤ 14 ② 15 ⑤

01 이 글은 국내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를 국제적 문제로만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지 않는 문제를 다루며 전문 취재 팀의 부족, 미흡한 검증 시스템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해외 언론 매체와 국내 언론 매체의 기후 위기에 대한 보도 행태에서의 유사점이 아닌 차이점이 드러나 있다.
- ③ 언론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나 국내 언론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국내 언론 매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해외 언론 매체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2 <보기>의 자료는 출처는 명확하지만 생략된 연도가 많아 왜곡이 심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구하여 (나)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 이 글은 기후 위기 보도에 관한 국내 언론 매체의 역할에 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04 (다)에서는 국내 언론 매체가 기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기사를 쓰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하여 특정 시기에 ‘기후’라는 단어를 포함한 신문 기사의 대부분이 기업 제품 홍보 보도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자료의 조사 기간이 짧아 신뢰하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보편타당성’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언론인들만 이해할 수 있다면 보편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 ② 정치적 역할을 언급하는 것과 신뢰성은 관련이 없다.
- ④ 국내 언론 매체의 사회적 역할 강조와 공정성은 관련이 없다.
- ⑤ 언론 매체의 역할을 강조한 것을 보편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05 언론 매체는 사회 분야에서 기후 위기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

층과 공공시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하고 해결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인들에게만 기후 위기를 경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나’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집안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어리둥절하다는 말을 통해 ‘나’가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7 서상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책들을 서적상에 팔아 ‘나’의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준 것은 벼를 생각하는 우정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나’를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8 ㉠은 벼들이 ‘나’의 집에 서재를 지어 주기 위해 시작된 사건이며, 이는 ㉡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09 (가)에서 ‘왜 그러는 것일까요?’, (나)에서 ‘그럼 상대를 동정할 때는 어떨까요?’라고 의문문을 사용하여 독자와 대화하듯 글을 서술해 나가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특정 이론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② 여러 학자의 견해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사회적 통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 없으며, 해결 방안의 제시도 찾아볼 수 없다.
- ⑤ 대립하는 두 관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10 이 글은 철학 분야의 글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 따지기보다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고 타당한지를 판단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글을 읽으며 궁금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는 것은 적절한 읽기 전략이다.
- ②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는 전략으로 적절하다.
- ④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 전략으로 적절하다.
- ⑤ 글의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전략으로 적절하다.

11 (가)~(라)를 통해 진정한 우정은 존경과 존중이 전제되어 있으며, 동락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함을 알 수 있다.

12 인류를 사냥하던 맹수들이 지금은 동물원에 있는 것은 인류의 뇌가 커지며 고도로 지능화되었기 때문이다. 맹수들이 친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13 니체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행복감을 느끼며 더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는 존재를 진정한 친구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친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14 (가)는 기후 위기 시대에 언론 매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나)는 ‘딱딱한 야전 침대’에 빗대어 진정한 친구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가 언론 매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에서도 친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나)에서 잘못된 우정의 폐해를 고발하고 있지 않다.
- ④ (가)와 (나) 모두 특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⑤ (가)와 (나) 모두 특정한 규범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15 니체는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를 무조건 편안하게 배려하고 직접적으로 돕기보다 친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고 독려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5 소통하고 참여하라

01 매체 소통 문화와 공동 보고서 쓰기

내용 확인하기

183~188쪽

1 ② 2 ④ 3 ④ 4 ④ 5 ⑤ 6 ① 7 ② 8 ④ 9 ⑤ 10 ③
11 ④ 12 ⑤ 13 ②

- 매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통로이다. 매체를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전달된다.
- 〈보기〉에서는 인쇄 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쇄 매체로는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나 정보의 전달이 일방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 ①은 상호 작용적 매체의 하나이다. 상호 작용적 매체는 다양한 양식의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 이 글은 과거와 현재의 매체들이 지니는 특징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매체의 종류와 소통 양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매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편지와 전자 우편을 비교하는 등 과거와 현재의 매체를 비교하고 있다.
-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가 지니는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를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가에 따라, 내용물을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는가에 따라서도 매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매체가 변화하면서 의사소통의 방식이 확장되고,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편지와 전자 우편을 비교하면서 과거의 매체에서는 메시지 전달에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지금과는 다른 의사소통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 문화는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정보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사람들이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였다. 또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 인터넷 검색은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따라서 조사 방법에서 인터넷 검색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 있는 사이트나 기관의 자료를 찾도록 해야 한다.

오답 풀이

- ‘모둠원 역할 분담’ 표를 보면, 모둠원들이 골고루 역할을 나누어 조사를 함은 물론, 공동 보고서를 모둠원 전체가 함께 쓰도록 역할 분담을 하였다.
- ‘주제를 정한 까닭’을 보면 ‘최근 많은 사람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의성 있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소통 문화와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주제를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
- 목차는 독자를 고려하여 보고서의 흐름이나 짜임새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므로,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전개를 독자가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 수민이네 모듬의 보고서 주제와 목차를 보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문화와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조사하여 정리하는 조사 보고서를 쓸 것임을 알 수 있다.

- 조사 결과를 정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사 결과를 통해 느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 자료를 수집할 때에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을 더욱 정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조사 목적과 주제에 맞지 않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은 자료 선별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답 풀이

-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자료의 제작 시기가 가급적 최신인 것을 수집해야 한다.

- ②, ③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의 출처가 분명해야 하며 출처에 공신력이 있어야 한다.
- ④ 보고서는 객관성을 특징으로 하는 글이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할 때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자료 2’는 개인 방송에서 전자 상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수민이네 모두의 공동 보고서 주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소통 문화와 바람직한 활용 방안’과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서면 보고서에서도 영상 자료에서 필요한 장면을 캡처하여 자료 내용을 요약 또는 재구성하여 제시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쿼알(QR)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개인 방송은 대개 시청자와의 의사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한다.
- ④ 그래프는 자료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유리한 복합 양식 자료이고 형태도 적절하게 쓰였다.
- ⑤ ‘자료 3’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과 일반군의 콘텐츠 이용량을 비교하였을 때 특히 ‘메신저’나 ‘게임’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므로 두 대조군 사이에 차이가 없어서 제외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복합 양식 자료 1’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 시간을 조사한 통계 자료로, 자료에서 부정적인 관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②, ③ 그래프에서 주중, 주말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긴 시간 동안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의견이다.
- ⑤ 연령대별 주중과 주말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 시간을 비교해 보면 주중에 비해 주말에 10대의 이용 시간이 가장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2 공동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는 없다. 매체 자료는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 이외에도 표,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 소리, 음악과 같은 청각 자료 등 다양한 양식이 있으며,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효과적인 자료의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13 수민이네 모두는 공동 보고서의 ‘조사 방법’에서 설문 조사 대상(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과 면담 대상(우리 반 학생 20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189쪽

01 ① 02 ⑤

01 매체가 변화하면 그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문화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02 보고서의 개요는 실제로 글을 쓰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과 자료를 글의 흐름에 맞게 구성해 보는 과정으로, 목차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생략할 수 없다. 앞에서 작성한 목차를 바탕으로 보고서의 구성에 맞게 각 항목에서 제시할 주요 내용과 자료를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소단원 평가

190~192쪽

01 ① 02 ⑤ 03 ② 04 ④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소통 문화와 바람직한 활용 방안이다. 05 ④ 06 3 조사 결과 - (1)에 제시하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시한다. 07 ⑤ 08 ①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슬기로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생활 제안

01 이 글은 매체 변화에 따른 소통 문화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매체를 비교하였고,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에서는 매체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매체의 종류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오답 풀이

- ② 대조의 방법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양한 관점을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매체의 발달 과정을 시간 순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 ④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나 매체 활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분류의 방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나 대중들이 매체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02 편지와 같이 과거의 의사소통 문화에서도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있긴 하지만 피드백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문이나 방송으로 보내는 메시지 역시 피드백 방법이 적고 속도도 늦었지만 피드백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03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서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인터넷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줄고 전달 범위는 늘어났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인터넷 신문은 인터넷 전송을 통해 제공되므로 디지털 미디어로 볼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 ③ 이 글의 두 번째 문단에서 예상 독자가 떠올리는 미디어와 그들의 부모, 선생님이 떠올리는 미디어가 다를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주로 쓰는 미디어에 따라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 ④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이 역명의 다수 대중을 상대하는 매체를 '매스 미디어'라고 한다.
- ⑤ 신문은 주로 문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므로 활자 매체로 분류할 수 있다.

04 (가)의 '조사 동기와 목적' 부분에서 수민이네 모둠의 보고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일상에서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실태, 매체 특성, 바람직한 사용 방안 순서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주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소통 문화와 바람직한 활용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정의를 조사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보고서의 조사 동기와 목적을 참고하였을 때 보고서 내용을 포괄하는 주제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②, ⑤ 수민이네 모둠의 공동 보고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주제이다.
- ③ 수민이네 모둠이 조사하려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실태와 관련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보고서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로는 적절하지 않다.

05 '자료 1'의 내용은 주제를 뒷받침하면서 출처에 신뢰성이 있으므로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자료 2'는 출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6 <보기>의 자료는 연령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이용 시간을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이를 통해서 연령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가)~(다)로 보아 이 글은 조사 보고서임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조사 목적, 조사 절차, 조사 결과, 결론으로 구성된다. 결론은 조사 결과를 간결 명료하게 요약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자의 최종 의견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의미, 사용 실태, 바람직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③ 조사 절차에서 조사 방법을 보면 설문 조사와 면담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설문 조사의 경우 통계를 내어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여 제시해야 한다.
- ④ (다)의 (1)이 사용 실태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08 '1. 조사 동기와 목적'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 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바람직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조사 동기와 목적을 고려할 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담긴 놀라운 기술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 ③ 조사 동기와 목적을 고려할 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 ④ 조사 동기와 목적을 고려할 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경제적인 가치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 ⑤ 조사 동기와 목적을 고려할 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인한 대인 관계의 문제점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1등급 평가

193쪽

01 ④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2 [1단계] 뒷받침

[2단계] 주제

[3단계] '자료 1'은 출처는 분명하지만 주제를 뒷받침할 수 없어 활용하지 않고, '자료 2'는 3-(3)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바람직한 이용 방안을 언급할 때 활용한다.

- 01** 보고서에 자료를 실을 때에도 객관성 있는 태도로 자료를 왜곡하여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보고서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정확하고 타당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기간을 너무 짧게 하면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 ② 조사 결과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각 범주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주제의 일관성을 위해 조사 내용을 혼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결론에서는 조사 결과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⑤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한다고 보고서의 객관성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02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다양한 매체의 자료들을 보고서에 활용할 때에는 주제를 뒷받침하는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자료들을 선별하여 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조건>을 보면 우선 '자료 1'과 '자료 2'의 선별 결과를 밝혀야 한다. '자료 1'은 출처가 명확하여 신뢰성이 있지만 (가)의 보고서 주제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자료로 대체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자료 2'의 경우 출처가 명확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책임감 있게 이용하는 태도에 관한 공익 광고이므로 보고서의 조사 동기와 목적에서 언급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방안과 연관성이 높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조건>에 맞게 선별 결과와 활용 방안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자료 1'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과 '자료 2'의 활용 방안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자료 1'의 문제점을 밝히지 못한 경우	3
'자료 1'의 문제점과 '자료 2'의 활용 방안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자료 1'과 '자료 2'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해야 한다. 즉 '자료 1'의 내용은 개인 방송의 위반 사례에 대한 것인데, 이는 (가)의 보고서 주제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체 자료를 찾거나 '자료 1'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반면 '자료 2'의 경우 (가)의 보고서 주제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 실태와 바람직한 활용 방안 중 어느 부분에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02 사회적 독서 활동 발표하기

내용 확인하기

195~197쪽

1 ⑤ 2 ② 3 ③ 4 ⑤ 5 ⑤ 6 ③ 7 ②

- 1 독서를 통해 얻은 감동을 바탕으로 개인의 지적, 인격적 발전을 이루는 것은 사회적 독서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 독서 활동의 의의이다.
 - 2 사회적 독서 활동은 개인적 독서와 달리 다양한 사람들과 독서 활동을 하는 행위이다. 우진이네 모둠원들은 독서 동아리 활동과 북 콘서트 등에 참여하여 사회적 독서 활동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모둠원들의 대화를 통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관점을 경청하며 생각을 넓힐 수 있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독서 활동을 통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은 개인적 독서 활동에서도 가능하다.
 - ② 독서를 공동 소장하는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 ④ 독서 활동을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독서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 ⑤ 개인의 생각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 독서 활동에서도 가능하다.
- 4 발표 연습을 할 때는 청중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선, 손동작, 말의 빠르기, 말소리의 크기 등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발표자 외에도 모둠원들이 함께 발표 연습을 점검하면서 발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 5 청중의 특성에 따라 발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면, 질문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청중이 발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다.

오답 풀이

- ① 예상 청중이 발표 주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효과적인 전략이다.
- ② 예상 청중이 주제에 대한 관심도나 흥미가 낮을 때, 또는 청중의 연령대가 낮을 때 효과적인 전략이다.

- ③ 발표는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로, 청중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사전 지식이 풍부한 청중에게 상식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청중의 흥미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청중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
- ④ 복합 양식 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하면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보 전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자료를 무조건 많이 보여 주려다 보면 필요한 발표 내용을 모두 전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발표가 산만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이 사용하기 보다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 6 ‘슬라이드 1’에서 모집 조건에 우리 학교 학생 누구나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리원의 지원 자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슬라이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슬라이드 1~3’에서 ‘별★나고’로 동아리 이름 사이에 별 모양의 기호를 넣어 시각적으로 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슬라이드 2’ 하단에 다양한 책 표지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슬라이드 2’에 독서 동아리 별나고의 조장이 1학년 1반에 있다는 점만 제시되어 있을 뿐 조장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발표 과정에서 조장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다.

- 7 동아리의 활동 목적을 설명할 때는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목소리를 밝게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것이 좋다. 심각한 표정은 어울리지 않는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198쪽

01 ④ 02 ③

- 01 독서 활동에는 개인적 독서 활동과 사회적 독서 활동이 있다. 사회적 독서 활동은 독서 동아리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책을 읽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풍요로

운 독서 경험이 가능하다. 독자 개인의 지적·인격적 발전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독서 활동은 개인적 독서 활동이다.

- 02**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발표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다. 청중에게 발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은 ‘발표 전략 계획하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소단원 평가

199~200쪽

01 ③ **02** ② **03** ①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학급 문고를 읽고 반 친구들과 독서 토론하기 **04** ③ **05** ②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말로 시작하여 친근감을 준다. **06** 발표 연습을 해야 한다.

- 01** 사회적 독서 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독서 후에 공개적인 발표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2** (나)의 학생이 작가 초청 강연회에 참석한 것은 서로 같은 책을 읽고 참여한 사회적 독서 활동이지만, 지역 도서관의 행사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책을 읽고 기념품을 만들어 본 경험은 같은 책을 읽고 진행한 활동이 아니므로 서로 다른 책을 읽었을 때에도 사회적 독서 활동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03** ㉠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사회적 독서 활동의 사례이다. ㉠은 개인적 독서 활동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04** 발표는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중의 예상 질문을 미리 생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발표 내용에 포함하여 청중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5** 추천 도서를 소개할 때 발표자가 책을 읽지 않은 학생들을 보며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것은 청중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발표는 청중과 상호 소통하는 것이므로 청중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발표의 도입부에서 친근한 인사말로 시작하여 청중의 호감을 얻고 분위기를 이끄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다.
③ 전개부에서 동아리의 활동을 제시할 때는 활동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여 주면 청중을 발표에 집중하게 하여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다.
④ 지역 도서관 행사에 참여한 활동을 제시할 때에는 그와 관련한 실물 자료가 있다면 직접 가져와서 보여 주는 것도 적절한 전략이다.
⑤ 정리부에서 질의응답 때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하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발표 제목을 화면에 띄워 두는 것도 적절한 전략이다.

- 06**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은 ‘발표 주제와 목적 정하기 → 예상 청중 분석하기 → 발표 전략 계획하기 → 발표 내용 조직하기 → 발표 자료 만들기 → 발표 연습하기’로 이루어진다. ㉠에는 발표 준비의 마지막 단계가 들어가야 하므로 ‘발표를 연습해야 한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등급 평가

201쪽

01 ②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2 [1단계] 독서 활동

[2단계] 관심, 복합 양식

[3단계] 별나고의 독서 활동을 소개한 ‘슬라이드 4’는 예상 청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므로 사진, 영상 등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 01** 청중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중은 이미 수업 시간에 사회적 독서 활동에 대해 배웠다. 또한 청중의 관심사를 보면 우리 동아리만의 차별화된 독서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독서 활동과 개인적 독서 활동의 차이를 묻는 질문은 예상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청중은 사회적 독서 활동을 알고 발표 주제에도 관심이 있으므로, 독서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발표 주제와 관련되므로 독서 동아리의 독서 주제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다.
- ④ 독서 동아리 활동과 관련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묻는 것은 예상 질문으로 적절하다.
- ⑤ 예상 청중 분석에서 발표 주제인 '우리 독서 동아리가 진행한 사회적 독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여러 활동 중에서도 가장 차별화된 활동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예상 질문으로 적절하다.

02 1등급을 결정짓는 **기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가)에서 예상 청중 분석을 살펴보면 예상 청중의 관심사는 우리 동아리만의 차별화된 독서 활동이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발표를 할 때 예상 청중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내용은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 주는 발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예상 청중과 관련하여 복합 양식 자료를 제시하는 까닭을 적절하게 쓴 경우	5
복합 양식 자료를 제시하는 까닭을 적절하게 썼으나 예상 청중과 관련을 짓지 못한 경우	3
예상 청중과 관련을 지었으나 복합 양식 자료를 제시하는 까닭을 미흡하게 쓴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17세의 예상 청중은 글보다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에 익숙하고, 이런 자료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또 동아리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관심이 있으므로 발표 자료를 만들 때 동아리의 차별적인 활동을 보여 주는 사진과 영상 등을 활용해야겠다고 전략을 세웠을 것이다.

대단원 평가

202~207쪽

01 ① 02 ① 03 ② 04 ② 05 ② 06 ③ 07 ③ 08 ⑤
09 ⑤ 10 ② 11 ⑤ 12 ④ 13 ⑤ 14 ③ 15 ② 16 ⑤ 17 ④

- 01 의사소통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인터넷의 발달은 의사소통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①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 ②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이 크게 증가하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 ③ ㉠의 이용이 증가하며 소통 방식이 다양화되었다.
- ④ ㉠이 과거에 비해 중요성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의 중요성은 커진다.
- ⑤ ㉠의 발달로 의미 있는 소통이 사라졌다는 내용은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02 매체의 변화에 따라 인쇄 매체, 방송 매체와 같은 대중 매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가 생기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인쇄 매체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② 매체의 변화로 디지털 매체가 새로 생기는 등 전달 수단에 따른 매체 분류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계속 변화할 것이다.
- ③, 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확장되고,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졌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달라진 소통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 ④ 어떤 메시지에든 즉각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 03 ㉠에는 신문, 잡지, 책 등이 들어갈 수 있고, ㉡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사회 정보망 서비스(SNS)는 디지털 매체로 분류할 수 있다.

- 04 매체 소통 문화와 관련한 보고서 주제를 정해야 한다. ㉤는 드론의 상용화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매체 소통 문화라는 주제와 거리가 멀다.

- 05 공동 보고서를 쓰기 위한 준비 과정 중 모듬원의 역할을 분담할 때는 모듬원 전체가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면담 목적에 맞는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담을 요청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미리 자료를 조사하여 적절한 면담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 ③ 공동 보고서이므로 항목을 적절히 나누어 작성하는 등 글쓰기에도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문헌 조사는 책을 모두 읽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 제목과 차례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조사해야 한다.
- ⑤ 공동 보고서를 쓰기 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모둠원 전체가 서로 논의하거나 도와야 한다.

06 목차는 독자에게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전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독자가 목차를 보고 보고서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보고서의 분량이 적을 경우에도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들어가야 한다. 조사 동기와 목적은 보고서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생략할 수 없다.
- ② 보고서에 참고 문헌을 모두 제시하여 신뢰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참고 문헌이 목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목차는 독자에게 보고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개요는 글쓴이가 보고서를 쓰기 위해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목차를 썼다고 해서 개요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복합 양식 자료는 조사 결과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목차는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전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

07 수민이네 모듬의 프로젝트 활동에서 공동 보고서의 주제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소통 문화와 바람직한 활용 방안’이므로 개인 방송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②, 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어떤 연령대가 많이 사용하는지, 이를 이용하여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에 따라 소통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실태를 뒷받침하는 데 적절하다.
- ④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자는 공익 광고 내용은 바람직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태도나 방안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08 유명한 사람이 제작한 자료라고 하여 무조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

고서의 자료를 수집 및 선별할 때는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최신의 자료, 관점이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해야 한다. 또한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양식의 자료를 수집하면 보고서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09 ‘자료 4’는 가짜 뉴스를 공유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가짜 뉴스를 대하는 자세와 뉴스를 바르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자료 1’은 가짜 뉴스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나타나 있으므로 가짜 뉴스의 피해 현황 즉 실태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② ‘자료 2’의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뢰할 만한 정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거나 출처를 보완해야 한다.
- ③, ④ ‘자료 3’은 가짜 뉴스가 어떻게 퍼지는지에 대한 자료로 가짜 뉴스의 전파력과 그 원인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10 (가)에서 사회적 독서 활동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지식이나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유대감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독서 활동의 의의는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②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개인적 독서를 통해서도 지식을 새롭게 쌓을 수 있다.
- ③ 사회적 독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가)에서 사회적 독서 활동을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사회·문화 발전의 주제로 성장할 수 있지만 독서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회적 독서 활동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독서의 실천을 통해 배경지식을 깊이 있게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기술을 늘리는 것은 개인적 독서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11 (나)는 발표의 준비 과정이다. 성공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발표를 준비하는 전 과정에서 모든 모듬원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참여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발표를 들을 청중이 정해진 경우 예상 청중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으므로 청중 분석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발표를 준비할 수 있다.
- ② 청중 분석에 따라 발표에서 다룰 내용의 범위나 전문성 등을 조정해야 한다.
- ③ '발표 전략 계획하기'에는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자료를 찾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 내용을 조직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발표 내용을 조직할 때는 청중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청중이 관심을 갖고 흥미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2** 발표 전략을 세울 때는 청중을 분석하고 청중의 관심사에 맞게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보다 전략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중의 관심보다는 발표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지 계획하는 과정이다.
- ② '발표 전략 계획하기'에서는 예상 청중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 ③ ㉠은 '발표 내용 조직하기' 전 단계로 효과적인 전달 방식을 고려하여 수집한 자료 중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 ⑤ 발표 전략을 세울 때에는 표현 방식에 따라 전달력 달라짐을 인지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 13** '발표 자료 만들기' 과정에서 자료를 활용할 때는 목적과 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의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그래프는 수치를 시각화하는 자료로, 독자들이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돕는 효과가 있다.

오답 풀이

- ① 현장의 실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자료로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적절하다.
- ② 청각 자료는 구체적인 음악, 효과음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할 때 적절하다.
- ③ 대상의 움직임이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복잡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항목화하여 보여 줄 때는 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14** 발표를 연습할 때에는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점검하여야 한다. 청중의 반응에 따라 말의 어조나 속도에 변화를 주어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발표자가 발표 자료만 보거나 시선을 한 곳에만 두지 않고, 청중을 골고루 바라보며 발표를 할 때 청중의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
- ② 청중에게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적절한 크기의 목소리로 발표 연습을 해야 한다.
- ④ 손짓이나 몸짓을 사용하면 청중에게 내용을 강조하여 전달할 수 있다.
- ⑤ 도입부에서는 호감 가는 말로 청중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 15** 사회적 독서 활동 과정에서도 개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보기>의 발표 자료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는 독서 동아리 활동이 소개되어 있고 독서 동아리 활동은 사회적 독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 ③ 추천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은 청중의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으므로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은 적절하다.
- ④ 발표 자료는 예상 청중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
- ⑤ 실제 동아리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를 활용하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 16** (라)를 보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발표 주제와 목적을 정하고 예상 청중을 분석하는 등 발표 준비 과정에 따라 설명이 되어 있다. 하지만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자주 일으키는 실수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가)를 보면 과거에는 신문사나 방송사가 보내는 메시지를 다수의 대중이 일방적으로 받았다고 하였다.
- ② (나)를 보면 내용에 따라, 내용물의 형식에 따라 매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다)를 보면 사회적 독서 활동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지식이나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 ④ (라)를 보면 예상 청중을 분석할 때는 배경지식과 지식 수준, 관심사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 17** <보기>의 광고는 공익 광고 영상이다. 이러한 광고는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상 청중은 다수의 대중이며 현재 다수의 대중이 지니는 사상, 가치관, 관

심사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예상 청중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이 광고는 영상 매체에 해당한다.
- ② 이 광고는 인터넷으로 전송이 가능한 동영상으로 디지털 자료에 해당한다.
- ③ 이 광고는 동영상이므로 복합 양식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이 자료가 발표 주제나 목적에 맞는지 검토하고, 발표의 어느 부분에서 활용해야 전달 효과가 높을지에 대해서 모둠원끼리의 협의가 필요하다.
- ⑤ 이 공익 광고의 형식을 보면 동영상임을 알 수 있다. 과거에 공익 광고는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로 주로 전달되었으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메모